

01

January 2026
vol. 297

Style

조선일보

Ultimate
Luxury Lifestyle
Magazine

Art + Culture

omegawatches.com



Seamaster
PLANET OCEAN



LOUIS VUITTON

르 모노그램, 1896년부터 이어진 시대를 초월한 헤리티지

르 스피디 - 1930

Contents

- 06_ **INSIGHT**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탈
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을.
- 08_ **SELECTION** 스기 하에 뺄줄 수 없는 장
비를 더해 완성한 아바르테스키 룩.
- 09_ **STARRY NIGHT**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달
은 주얼리 컬렉션.
- 10_ **자연, 책, 예술, 그리고 삶의 연결점** 대만 중
부의 거점 도시 타이중의 아심 찬 문화 프로
젝트로 베일을 벗은 '뮤지엄브러리(Museum
brary)'는 다면적인 매력을 품고 있다.
- 14_ **BEYOND THE OCEAN** 오메가의 아이코
으로 자리매김한 씨스타터 플래닛 오션 컬렉
션의 역사와 새로운 챌린저를 공개한다.
- 18_ **GRAND LEGACY**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
온 클래식 위치는 브랜드를 상징한다.
- 19_ **고대 로마 신화, 불멸의 컬렉션으로
재탄생하다** 19세기 고대 로마의 역사를
를 주얼리의 미학으로 선보이는 <카르티에와
신화, 카피톨리니 박물관 특별전 (Cartier &
Myths at the Capitoline Museums)>.
- 20_ **LUXE DAZE** 2026년 새해를 상징하는 것.
붉은 말, 한색, 그리고 블랙.
- 28_ **GET THE LIST**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
출발하는 당신을 위한 스폰그 리스트.
- 30_ **시간의 축에 속해 있던 섬세한 아름다움** '열려
있는 국제도시 타이베이'의 낙하호트 만나
린 오라엔탈 타이베이의 진면목을 살펴봤다.



한계를 넘어서 아름다움,
플래닛 오션 4세대 컬렉션은
오메가의 탐험 정신을 순수한
형태로 구현해, 바다의
에너지로 담아낸다. 리세이프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 시마스터
헤리티지에서 영감받은
타이포그래피가 모던함과
클래식함이 어우러진 실루엣을
완성해, 블루·블랙·오렌지
베젤, 세 가지 버전으로 출시된다.

문의 02-3479-6025



stylechosun.co.kr
instagram

◀ 스타일 조션월리 ▶ 홈페이지는 실질적인 정보의
러셔리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
제안으로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츠를 준비하고
여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학철학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여문과 스타일 조션월리를
더욱 가까이 만나요! 여러분들! 럭셔리 코 감상의
감각과 품위가 함께하는 스타일 조션월리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kr



31. **ELEVATED WITH TIME** 오로지 단일 해의 포도로만 빈티지 샴페인을 선보이는 동 페리뇽의 빈티지 2008 풀레니뉴드 2.
33. **ART+Culture** 이번 <스타일 조전일보> 'Art+Culture' 거울 스페셜호에는 요즘 들어 문화 예술계의 행보가 가장 역동적인 대만에서 전개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들과 지구촌의 여러 흐름을 들여다본다.
34.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갈망한다** 지난해 11월 초 막을 올린 타이베이 비엔날레 2025.
37. **'내운의 도시'가 창조하는 세계** 평범한 일상물을 이루는 작은 요소부터 예술가의 창조적 언어를 아우르는 사막의 도시에다.
40. **진정으로 '잘 먹는' 생태계로 향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삶을 지탱하는 '기본인' 먹거리 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색채고 있는 멜버른.
42. **미식으로 경험하는 브랜드의 정수** 최근 서울에서 화제를 모은 루이 비통의 새로운 미식 공간부터 다양한 해외 사례까지.
44. **'코리야 판타지'를 새로 쓰는 서라벌의 미술** 올해 2025년 가을 '2025 아시아+ 태평양경제 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이후 '세월'이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부각된 경주의 유산.
46. **생태적 감각으로 마주한 세계** 다니엘 스티그만 안그라녜(Daniel Steegmann Mangrané)의 한국 첫 개인전, <산과 친구들>(Befriending the Mountains).

Style조선일보

대표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김유미 ymkim@chosun.com 아트&컬처 디렉터 고성연 amazinkg@chosun.com
 패션 에디터 디렉터 정성민 sjm@chosun.com 에디터 김하인 stylechosun.khy@gmail.com, 윤지영 yj@chosun.com 디지털 에디터 산정미 sjj@chosun.com
 인턴 에디터 김보민 bomingg0129@gmail.com 디자인 나은컴퍼니, 박준서피쳐 곽영 이정현 수정 박진경
 광고 마케팅 방정희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강혜진 hgkim@chosun.com 재무 노연경 분혜 재팬 덕일 인쇄 타라티피소
 및 피 및 광고 문의 02-749-5665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패리는 비즈니센터 110호

REJUVENATING BOOSTER SHOT

M.D. SERUM

리쥬브네이팅 부스터 샷 엠디 세럼



피부와 스킨 부스팅 관리¹
그 이상²의 물광 리프팅 세럼

¹건강한 피부를 위한 스킨케어의 의미 ²스킨부스팅 특수 케어 1회와 AP세럼 사용 3일 후 비교 결과, 수분/장벽 개선 우수

ap-beauty.com | 롯데백화점 본점 02-726-4022 롯데백화점 잠실점 02-2143-7956 롯데백화점 인천점 032-242-2146 현대백화점 압구정본점 02-3438-6081 현대백화점 목동점 02-2163-1150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421 현대백화점 판교점 031-5170-2171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02-3479-1209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031-695-1287 신세계백화점 본점 02-310-5089 갤러리아 압구정점 02-3018-5484

INSIGHT



Imperial Radiance

고대 특유의 웅장함과 고아함에서 영감받은 피아제 포제션 데코 펠리스 펜던트는 브랜드가 늘 강조해오던 혁신적 디자인과 장인 정신을 가장 잘 표현한 네크리스다. 피아제를 상징하는 금세공 기법인 데코 펠리스를 적용해 입체 패턴의 독창적 텍스처가 돋보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눈부신 골드빛을 발한다. 로즈 골드 메달을 유려하게 감싼 75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세팅이 주얼리의 광채를 극대화하고, 라운드 형태의 단정한 실루엣은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문의 1877-4275



Toi et Moi

지혜와 용기, 사랑과 보호를 상징하는 뱀 모티브에서 영감받은 부쉐론의 세행 보행 투헤드 링. 자유롭고 우아한 감각을 지닌 여성을 위한 아이콘으로 자리 잡은 세행 보행 컬렉션의 정체성을 담아냈다. 2개의 드롭 모티브가 마주 보는 투헤드 디자인은 'Toi et Moi'(투아 에 무아), 즉 '너와 나'를 의미하며, 사랑하는 두 사람의 영원한 결속을 상징한다. 각각의 드롭 모티브는 서로 균형을 이루며, 하나의 링 위에서 섬세한 조화를 완성한다. 16개의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드롭 모티브에 파베 세팅해 부쉐론 특유의 정교한 세공과 우아한 광채를 강조했다. 1천만원대. 문의 080-822-0250

Winter Speed

약 50일 뒤면 2026 밀라노-코르티나 동계 올림픽이 개막한다. 오메가는 D-100일에 이를 기념하는 스피드마스터 스페셜 에디션을 공개했다. 지난 90년간 동계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과 함께해온 오메가는 올해 역시 8개 종목, 총 1백16개의 경기를 공식적으로 축정할 예정이다. 이를 기념하는 스피드마스터 밀라노 코르티나 2026은 지름 38mm 스테인리스 스틸 풀 플리시드 케이스에 화이트 에나멜 타카미터 스케일을 새긴 블루 세라믹 베젤 링을 매치해 완성했다. 화이트 바니시 다이얼에는 연한 블루 컬러로 프로스팅 처리를 더해 독특한 겨울 스포츠 감성을 부여한다. 케이스 백에는 밀라노 코르티나 2026 메달리온을 스탬핑해 특별함을 더했다. 문의 02-3467-8632

Shearing Effect

따뜻함과 스타일까지.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시어링 아이템.



시어링 감성을 녹여낸 플스킷 디테일 라지 솔더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100% 시어링 랙 스킨에 플라워, 스트라이프, V 로고로 완성한 안감이
포인트인 퍼 코트 2백만원대 발렌티노. 문의 02-2015-4655



시어링한 질감을 살린 텍스처로 따뜻한 감성의 스타일리시한 룩을 완성해주는
몽클레르 그레노블 컬렉션 테디 캡 1백66만원 몽클레르. 문의 0030-8321-0794
화이트 컬러의 도르사토 시어링 소재와 아이코닉한 건투어 아르코 모티브의
웨지힐 샌들 2백만원대 쥘리. 문의 02-544-1925 포토그래퍼 최인영 에디터 성경민



The New Elegance

룩에 포인트를 더해줄 헤어 액세서리. (위부터 차례대로) 길게 늘어선 블랙 리본이 특징인 헤어밴드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빈티지 페이즐리 & 페가소 스크린치 19만원대 에트로. 문의 02-3446-1321. 러블리한 무드의 스탬핑 리본 헤어 클립 75만원대 셀린느. 문의 1577-8841. 모노그램 실루엣 모티브 LV 아웃라인 실크 헤드밴드 가격 미정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아이코닉한 ORB 안나리사 라지 헤어 클립 38만원대 비비안 웨스트우드. 문의 02-3015-6464. 포토그래퍼 윤지영 인턴 에디터 김보민



Blooms in Noir

샤넬 하우스가 시그니처 컬러 루주 노와르에서 영감받은 리미티드 에디션, 루주 노와르 멀티 팔레트 콤팩당을 선보였다. 마젠타부터 진주빛 로지 화이트 하이라이트, 핑크 시머의 시메나 레드, 모보 핑크까지 네 가지 컬러를 담아 아이섀도와 블러셔로 활용 가능하며, 레이어링에 따라 다양한 무드의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다. 12g, 13만3천원. 문의 080-805-9638



Golden Time

IWC의 인제니어 오트메트릭 35는 1970년대 제네바의 시계 디자이너 제랄드 젤타가 디자인한 스포츠 위치를 재해석한 위치다. 지름 35mm의 콤팩트한 케이스에 작은 선들이 모여 완벽한 시각형을 이루는 그리드 패턴 다이얼과 시인성을 높여줄 슈퍼루미노바® 핸즈와 인덱스를 더했다. 케이스 사이즈에 맞춰 모든 요소를 정밀하게 조율한 완벽한 비율과 편안한 착용감을 위한 인체 공학적 디자인이 특징이며 케이스부터 다이얼, 브레이슬릿까지 황금빛으로 통일해 따뜻하고 우아한 존재감을 발현한다. 오픈 케이스 백을 통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는 47110 칼리버를 감상해볼 것. 5천7백30만원. 문의 1877-4315



Small but Iconic

손에 쥐는 순간 스타일이 완성되는 미니 백.

SPACE & MUSIC

열 돌을 넘긴 '이우환 공간'

부산시립미술관 별관의 '이우환 공간'이 개관한 지도 10년이 넘었다. 일본 나오히라의 미술관에 이어 이우환 작가에게 헌정된 두 번째 미술관인 이우환 공간은 2015년 5월 선보였는데, 기본 설계부터 작품 배치, 사무 집기까지 작가가 디자인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뜻깊은 예술 공간의 개관 10주년을 맞이해 지난 12월 중순에는 기념 연주회가 열렸다. 작가의 작품 세계에 감응한 신에 작곡가 이하느리가 만든 창작곡을 초연으로 공개했으며, 이와 함께 그가 선별한 주제곡을 선보였다. 이우환 공간에서의 프라이빗한 공연에 이어 부산콘서트홀에서 <보는 소리, 듣는 빛> 연주회(12월 14일)가 1시간에 걸쳐 개최됐다. 작가가 참석한 가운데 총 4곡을 선보였는데, 먼저 일본 첼리스트 기타지마 아키가 소리와 소리 사이 침묵을 통해 청각의 여백을 선사하는 미국 작곡가 모던 펠드먼의 '투영 1번(Projection I)'을 짧게 연주하며 은근한 긴장감을 자아냈다. 이어 이하느리가 이우환 작가의 '여백과 관계'의 미학에 영감을 받아 작곡했다는 '스터프 스태프(Stuff#3)'를 선보였다. '스터프' 연작의 세 번째 작품인 이 11분짜리 곡은 하나다 와키코의 지휘와 기타, 베이스 플루트, 더블 베이스, 바이올린, 베이스 클라리넷으로 구성된 일본 앙상블 노마드, 그리고 기타지마 아키가 합세해 연주했다. 고전적인 조성과 리듬을 해체한, 다분히 현대음악다운 변칙적인 자유분방함, 그리고 젊은 작곡가의 재기 발랄함이 느껴지는 곡이다. 다음 곡은 이우환 작업 과정의 물임감을 연상시킨다는 바흐의 '무반주 바이올린 소나타 1번'으로,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의 유려한 솜씨로 공간을 수놓았다. 그리고 음악과 그림이 빛나는 공명을 꾸준히 탐색해온 화음 챔버 오케스트라의 앙상블로 스위스 작곡가 워크 프라이의 '현악 4중주(Streichquartett)'가 마지막을 장식했다. 낯설 수도 있는 담백한 '화음(畫音)'의 미학은 묘한 여운을 남겼다. 글 고정연





Starry Night

밤하늘의 빛나는 별을 닮은 주얼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반대 방향으로) 사벨 **파빈 주얼리 코페트** 링 **가브리엘 샤퐀**의 사랑한 모티프로 속 하인리히 별 모양으로 완성한 링, 18K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임을 주었다. 가격 미정. 문의 080-805-9628

그라프 트리아빌 컬렉션 다이아몬드 이어링 하늘에서 빛나는 아름다운 별을 모티브로 탄생한 트리아빌 컬렉션의 이어링으로, 라운드 파베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총 2,233캐럿을 세팅해 완성했다. 3천5백68만원. 문의 02-2150-2320

스티븐 웹스터 다이아몬드 스타라스트 블루 링 데이트와 보위의 열렬 가운에 등장한 별과 모티브로 영감받은 다양한 컬렉션의 링, 비어의 보석한 디테일과 반짝이 빛날 다이아몬드 총 2.12캐럿을 세팅했다. 핑크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미정. 문의 02-2231-1592 **다울 파빈주얼리 로즈 드 방 니르사** 컬렉션에서 영감받은 나비만 모티브로 완성한 디자인이 별을 연상시킨다. 화이트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우아한 반짝임을 부여한다. 가격 미정. 문의 02-3280-0104

타시키 코헛 플러스 다이아몬드 파빈 이어링 주얼리 하우스에서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헤성의 이미지를 표현한 컬렉션의 이어링, 18K 화이트 골드에 아칸과 진주와 다이아몬드를 완성했다. 가격 미정. 문의 02-3461-5558

피아제 센타르드 펜던트 태양의 생생함과 빛에서 영감받은 주얼리 컬렉션으로 빛에서 불어날아오는 섬광을 본떠 만들었다. 18K 로즈 골드 소재에 16개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총 0.13캐럿을 세팅했다. 4,969만원. 문의 0777-42755

포폴라토 이코나! 액시 링 불꽃같이 느껴지는 로즈 골드 소재 밴드에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다양한 모양으로 골라 세팅해 유니크함을 부여했다. 가격 미정. 문의 0030-8321-0441 **에디트** 디자인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Taichung Green Museumbrary)

자연, 책, 예술, 그리고 삶의 연결점

한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운명을 지닌 건축물이 막 공개될 즈음, 묘한 긴장과 설렘이 교차하는 현장에 동참한다는 건 굉장히 흥미진진한 일이다. 지난 12월 중순 대만 중부의 거점 도시 타이중의 야심 찬 문화 프로젝트로 드디어 베일을 벗은 ‘뮤지엄브러리(Museumbrary)’ 애기다.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된 이 콤플렉스는 단어 조합에서 짐작할 수 있듯 푸릇한 자연 속에서 미술관과 도서관이 하나로 느슨하게 묶이는 개념의 새로운 문화 플랫폼이다. 실제로 이 콤플렉스는 타이중 도심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멀지 않은 수아닌 경제무역단지 내 공원인 센트럴 파크의 한쪽 끝자락에 자리한다. 시정부 차원에서 2013년 국제 공모전으로 건축가를 선정해 오랫동안 진행해온 공공 프로젝트인 만큼 화제성도 남달랐다. 더구나 그 주인공은 건축계 최고 권위를 지닌 프리즈커상을 거머쥔(2010년) 세지마 가즈요(Kazuyo Sejima)와 니시자와 류에(Ryue Nishizawa)가 이끄는 일본 건축 스튜디오 SANAA였다. ‘가볍고, 투명하고, 열린’ 건축을 지향하는 SANNA의 스타일답게 뮤지엄브러리의 외관은 마치 8개의 하얗고 네모난 상자가 그룹처럼 살짝 공중에 떠 있는 듯한 모양새다. 건축만으로도 글로벌 여행자들을 불러 모을 이 매력적인 플랫폼은 안으로 들어가보면 한층 더 다면적인 매력을 품고 있다. 오프닝 전에 만난 건축가 듀오가 얘기했듯 ‘자주 찾다 보면 많은 연결 고리를 발견하는’ 즐거움을 위한 발품이 아깝지 않을 것이다.



모두를 위한 공원 옆 ‘미술관+도서관’

건축계 거장 SANAA ‘듀오’의 또 하나의 이정표

고속철을 타고 내린 타이중 도심에서 다시 택시를 타고 15분가량 달렸을까. 자못 화려한 파사드를 입은 컨벤션 센터(TICEO)가 스쳐 지나가고는, 드디어 뮤지엄브러리를 실물로 마주하는 순간이 다가왔다. 도시의 표정이라고도 일컬어지는 건축과의 조우를 틈만 나면 추구해온 입장에서 타이중이 글로벌 랜드마크로 당당히 내세운 뮤지엄브러리가 궁금하지 않을 리 없었다. 아마도 21세기 들어 가나자와 21세기 미술관(일본 가나자와), 뉴 뮤지엄(미국 뉴욕), 시드니 모던으로 불리는 NSW 주립미술관 신관(호주 시드니) 등 지구촌의 주요 미술관 프로젝트를 맡아온 SANAA의 궤적을 우연히 접해왔기에 호기심이 조금은 더 강하게 발동했는지도 모르겠다. 대로를 지나 차에서 내리는 방향에서 오른쪽으로 하나, 둘, 셋, 서로 다른 모양새의 건물이 차례로 시야에 들어온다. 하얀 블록을 비스듬하게 포개놓은 듯한 유리와 금속 소재의 담백한 건축물이 햇빛을 받아 살짝 투명하게 빛나고, 외벽은 그물 모양의 은백색 알루미늄 커튼 월이 전반적으로 감싸면서 경쾌한 질감과 개방성을 불어넣는다. SANAA 특유의 ‘공기 같은’ 건축 언어가 묻어나는 모습이다. 인상적인 건 뮤지엄브러리의 정문으로 들어가면 반겨주는 ‘열린 공간’이다. 미술관과 도서관 사이에 자리한 이 공간은 커다란 분수가 흐르는 로비 같은 역할을 하면서, 뒤로 가면(남쪽) 센트럴 파크로 바로 이어지는 ‘열린 통로’이기도 하다. 총 면적 57,996㎡(약 1만7천5백 평)에 이르는 뮤지엄브러리는 다양한 크기의 8개 덩어리로 이뤄져 있지만 작은 다리나 계단, 엘리베이터 등으로 연결되어 있다. 도서관은 7층, 미술관은 6층 건물이고, 5층에는 이를 이어주는 듯한 느낌의 작은 정원도 ‘컬처 포레스트(Culture Forest)’라는 이름으로 들어서 있다. 또 1층에는 아담한 카페와 아트 숏도 별도의 원형 공간에 들어서 있다. 아마도 첫 방문에는 ‘미로’처럼 느껴질 법한 면면이 많은데, 살짝 헤매면서 여기저기 숨은 공간을 발견하는 재미가 꽤 쏠쏠하다. 필자의 경우에도 도서관에서 발견한 ‘최애’ 만화책 시리즈가 꽂혀 있는 서고라든지, 미술관에서 길을 살짝 잃다가 예술 작품을 보하면서 공원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자투리 공간 같은 즐거운 마주침이 몇 번 있었다.

경계 없는 포용적 공간

“저희가 머릿속에 그린 큰 그림 중 하나는 ‘공원 같은 건축’이었어요. 그러자면 탐험할 거리가 많아야겠죠. 이 공간에 다양한 상호작용과 연결 고리가 있는 요소를 넣은 이유입니다. (그걸 마주치며) 사람들이 거닐 수 있도록요.” 좌중 앞에서는 과묵한 SANNA의 건축가 니시자와 류에는 이렇게 설명했다. 이처럼 유연한 연결성에 대한 건축 철학을 듣노라니, SANAA가 그들의 화려한 커리어에서도 역대급이라 할 수 있는 문화 예술 프로젝트인 뮤지엄브러리의 설계와 여러모로 결이 잘 맞는 협업자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확신이 들었다. 미술관과 도서관의 전통적 경계를 허물고 전시와 독

1 지난 12월 중순 개관한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Taichung Green Museumbrary) 건물의 외관. 햇빛에 반사되어 그려지는 무늬는 미술관 로고를 연상시킨다. Photo by 고성연 **2** 일본 거장 듀오인 세지마 가즈요와 니시자와 류에가 이끄는 건축 스튜디오 SANAA에서 설계를 맡은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의 8개 덩어리로 이뤄진 전체 모습. SANAA는 대만의 리키 류 & 어소시에이츠+플레네(Ricky Liu & Associates Architects+Planner)와 협업했다. **3**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의 미술관 건물 1층 아트리움에 자리한 양혜규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 ‘유동 봉헌-삼할 나무 그늘(Liquid Votive-Tree Shade Triad)’(2025). 저녁에 어둠이 내려면 LED 포인트로 반딧불이처럼 불빛이 작품을 감싼다. Photo by 고성연 **4** 타이중시 차원에서 개발한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는 누구나 가닐 수 있는 공원 부지에 들어서 있다. **5**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 내 5층에 있는 정원 ‘컬처 포레스트(Culture Forest)’. **6** 타이중 그린 뮤지엄브러리의 1층 정문 입구. 미술관과 공공 미술관을 연결하며, 공원으로도 통하는 일종의 열린 ‘로비’ 같은 공간이다. **7** 타이중 미술관(TcAM) 개관전에서 선보인 정소영 작가 작품 ‘Wheels Within Wheels I’(2025). Metal, wood, paint, 1.6×3.3×1.6m. **8** 양혜규 작가와 함께 첫 번째 TcAM 아트 커미션 작가로 선정된 대만 작가 마이클 린(Michael Lin)의 작업 ‘Processed’(2025). Emulsion on aluminium composite panel, Ø 8m×Ø 6m. **9** 뮤지엄브러리 내의 도서관 풍경. Photo by 고성연 ※ 2, 4, 5, 6 Image courtesy of Taichung Art Museum. © Iwan Baan ※ 7, 8,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Taichung Art Museum. Photo by ANPIS FOTO

서가 어우러지는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환경을 조성한다는 개념 자체가 SANAA의 참여적이고 열린 건축적 지향점과 맞닿아 있지 않은가. 팬데믹을 거치면서 장기간 이어진 이 프로젝트는 당초 책정된 예산보다 늘어난 5억3천 대만달러(한화로 약 2천5백억 원)의 자금이 소요됐다. 사실 뮤지엄브러리의 탄생 자체는 사회적, 정치적 차원에서 추진된 전략적 구상의 소산이다. 크게 보면 대만의 ‘문화적 르네상스’라는 비전에 부합하고, 타이중 입장에서는 지난 2010년 제2의 도시로 부상하면서 새로운 이정표가 될 만한 ‘통합’의 상징이 필요했던 상황에서 비롯됐기 때문이다. 산간 지역이 주를 이루는 타이중현과 고층 건물이 치솟아 있는 산업 기지인 타이중시가 하나로 합쳐지면서 주민들에게 창조적 영감과 자부심을 불어넣고 지역 정체성을 공고히 할 만한 공간이야말로 이상적인 돌파구로 여겨졌다. 원래 구상은 ‘타이중시 문화센터’였다고 하는데, 타이중시 문화국과 SANAA의 협업이 전개되면서 ‘공원 속 도서관’이자 ‘숲속 미술관’이라는 경계를 넘나드는 포용적인 ‘그린 뮤지엄브러리’라는 개념의 중심축을 잡게 됐다. 그 결과, 타이중시가 소장한 서적과 미술품을 뮤지엄브러리로 옮겨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공동의 플랫폼을 새 보금자리로 삼게 됐다. 배경이야 어쨌든 타이중 시민들과 더불어 여행자에게도 멋진 선물이 건네졌다는 사실이 중요하지 않았는가.





‘글로컬’ 미술관의 흐뭇한 사례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키는 개관전

10년 넘게 공을 들인 걸출한 문화 프로젝트인 만큼 뮤지엄브러리의 공개와 함께 그 공간에서 진행될 현대미술관의 개관전에도 이목이 쏠리는 건 당연하다. 정식 명칭은 타이중 미술관(Taichung Art Museum, TcAM). 그 시작을 기념해 ‘작은 비엔날레’를 연상시킬 정도의 규모와 내용을 내세운 첫 기획전을 내놓았다. 다국적(20개국 70여 명) 작가들이 참여한 ‘모든 존재의 부름: 내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만나요(A Call of All Beings: See you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4월 12일까지), 미술관을 둘러싼 자연과 도시 경관에서 영감을 얻은 이 전시는 타이중 미술관 큐레이터 팀과 링치조우(대만), 알라이나 클레어 펠드먼(미국), 안카 미홀레츠-킴(루마니아/한국)이 공동으로 기획했다. 독립 큐레이터 출신으로 40대에 초대 관장을 맡은 라이이신(Yi-Hsin Lai) 관장이 이끄는



1 양혜규 작가의 대형 설치 작품 ‘유동 봉헌 – 삼합 나무 그늘(Liquid Votive – Tree Shade Triad)’(2025). Aluminium venetian blinds, powder-coated aluminium hanging structure, steel wire rope, LED tubes, laser lighting, SMPS, wireless module, cable 2,362×1,086×1,086cm.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Taichung Art Museum. Photo by Chen Wan Ning
2 TcAM 개관전 〈A Call of All Beings: See you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설치 풍경. Installation view of ‘How to Draw a Coastline?’ Photo by ANPIS FOTO.
3 TcAM 개관전에서 선보인 타이중 출신 작가 라오더청(LIAO Te-Cheng)의 회화 ‘Afterglow(Guanyin Mountain at Dusk)’(1992). Oil painting, 44.3×36.8, 3cm. Courtesy of Taichung Art Museum. TcAM은 향후 대만 중부 작가의 뿌리를 찾는 연구와 기획전을 큰 축으로 삼을 예정이다.



미술관답게 젊고 열정적인 팀이다. 도교 철학부터 토착 우주관, 비서구적 관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방법론을 접목해 자연, 문화, 그리고 종 간 관계에 대한 다채로운 사고와 목소리를 들려주는 이 전시에는 다국적 작가들의 신작과 더불어 대만 중부 거장들의 뿌리를 느낄 수 있는 소장품이 조화를 이룬다. 건축의 유기적 연결성이 반영되듯, ‘첫 작품은 미술관 건물 6개 층에 걸친 5개의 전시실로 이동하기 전부터 말을 건넨다. 로비의 동그란 분수 곁에서는 돌과 흙, 금속, 콘크리트 등의 재료가 ‘날것’ 그대로 보이는 나선형 설치 작품이 눈길을 사로잡는데, ‘더 드릴(The Drill)’이라는 별칭을 지닌 아드리앵 티르티오(Adrien Tirtiaux)의 이번 전시용 커미션 작품이다. ‘Post-Museum Evidences’라는 제목이 암시하듯 미술관을 짓는 과정에서 남겨진 다양한 건축 자재를 활용한 작품으로 5층의 D 전시실까지 재료의 구성과 모양새를 달리해가면서 치솟아 있다. 그리고 건축적 조화를 넘어 67헥타르(약 20만 평)나 되는 공원 등 주변의 생태·문화적 풍경과 어우러지면서 미술관 정체성을 드러내는 대형 커미션 작품 2점도 선보였다. ‘열린 로비’ 같은 ‘퍼블릭 스페이스’에 놓여, 장기간 관람객을 만나게 된다(2년 주기). TcAM 아트 커미션의 첫 작가 중 하나는 대만 출신 마이클 린(Michael Lin). 그의 작품 ‘Processed’(2025)는 안내 데스크 역할을 하는 원형 파빌리온의 지붕 위를 대만 전통 직물에서 차용한 패턴으로 수놓고 있다. 지상 레벨보다 높은 층에서만 보이는 작품인데, 작가는 “전체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역할도 필요합니다”라고 담담히 설명했다.



지역 문화와 생태, 그리고 예술의 조화

수호신 같은 존재감을 지닌 양혜규의 ‘우주나무’

그리고 또 다른 TcAM 아트 커미션 작업은 베를린과 서울을 기반으로 세계 무대에서 눈부신 활약을 펼치고 있는 양혜규가 맡았다. 그녀가 대만에서 전개한 첫 대형 커미션 작업이자 블라인드 신작인 ‘유동 봉헌 – 삼합 나무 그늘(Liquid Votive – Tree Shade Triad)’(2025). 양혜규 작가는 그동안 한국과 대만을 비롯해 여러 문화권에서 전해지는 고목 숭배 전통에서 영감받아 천장에 매달린 나무를 은유하는 ‘유동 봉헌’ 시리즈를 선보여왔는데, 마을의 수호신을 모시는 신당 중앙에 주로 놓이는 한국의 당산나무는 ‘우주나무’로 여겨진다고 한다. 수직으로는 하늘과 땅을 이어주고 수평으로는 사방의 중심축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타이중 현지의 절과 숲 등을 찾은 현지 답사를 바탕으로 오래된 나무의 문화적 상징성을 담아낸 이번 ‘우주나무’ 작업은 짙은 녹색을 주된 색깔로 삼고 겨자색, 붉은색(버건디), 황갈색 등 자연의 색을 닮은 저체도의 블라인드로 구성해 온화하면서도 풍성한 색감을 자아낸다. 무엇보다 무려 27m에 이르는 미술관의 아트리움 공간에 놓여, 이를 둘러싼 나선형 경사로를 타고 올라가며 다각도로 감상할 수 있는 경험을 선사한다. “물리적으로 ‘크다’라는 느낌이 위압적일 수도 있고, 고압적일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제가 나무에서 포착한 건 사실 그런 느낌보다는 우러러보면서 휘청한 느낌이나 존경할 만하지만 친근한 느낌, 밤에는 미스터리하지만 신비로운 느낌이에요.” 오프닝 주간에 현지를 다시 찾은 양혜규 작가는 이



1 TcAM 개관전 〈A Call of All Beings: See you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설치 풍경. Installation view of ‘Folds and Flows’. Photo by ANPIS FOTO.
2, 3 대만, 중국, 호주, 제주도를 포함한 우리나라 남부 지방에서 자라는 녹나무를 둘러싼 생태 문제를 다룬 위치위(Wu Chi-Yu) 작가의 영상 작업 ‘Stories of Celluloid: Phantom Gaze’(2025)와 아카이브 사진. Photo by 고성연
4 TcAM 개관전 〈A Call of All Beings: See you tomorrow, same time, same place〉설치 풍경. Installation view of ‘Recalling Fables’. Photo by ANPIS FOTO.
5 한국 작가 문승현이 미술관을 무대로 건축적이고 퍼포먼스적인 차원을 탐구하는 커미션 영상 작업 ‘얇고 투명한 것들에 대하여(On Thin and Transparent Things)’(2025). 뇌성마비를 지니고 태어난 작가는 의식과 공간의 관계에 대해 질문을 던진다. Video performance, singlechannel video, 25 mins.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Taichung Art Museum.
6 TcAM 개관전에서 선보인 타이중 출신의 작가 천싱완(Chen Hsing-Wan)의 작업 ‘The Song of the Earth No.1’(1996). Mixed media, 245×456×80cm. Collection of Taichung Art Museum. Photo by ANPIS FOTO.

렇게 말했다. 실제로 타이중 미술관의 ‘우주나무’는 저녁이 되어 어둠이 내려앉으면 신비한 오라를 빛어낸다. 작품을 밝혀주는 LED 조명과 초록색 반딧불이를 연상시키는 레이저 빛의 반짝거림이 공간을 아름답게 물들이는데, 이 풍경은 특히 공원 쪽에서 바라보면 미술관 건물 전체를 밤의 수호신처럼 감싸는 듯해, 더 낭만적으로 와닿을 수도 있다. 2004년 폐쇄된 옛 군용 공항 부지에 조성되어 아직은 그다지 울창한 느낌이 들지 않는 공원이지만, 뮤지엄 브러리를 찾는다면 ‘책 삼매경’이나 ‘미술 산책’도 좋지만 초록이 점차 여름여가는 자연의 풍경도 꼭 눈에 담아 오기를 권유하고 싶다.

글 고성연(타이중 현지 취재)



Beyond the Ocean

오메가의 전설적인 다이빙 DNA를 계승한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이 4세대로 진화했다. 첫 출시 이후 20년이 지난 시점이다.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현대적 감각으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했지만, 컬렉션의 본질적 특성은 유지했다. 오메가의 오션 헤리티지와 다이빙 위치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한 이 대표 컬렉션의 역사와 새로운 챕터를 공개한다.



1

다이빙의 유산

오메가의 다이빙 헤리티지는 1932년 세계 최초의 민간 다이빙용 위치로 알려진 마린(Marine)에서 출발한다. 이 혁신적인 시계는 1950~70년대까지 이어진 수중 유산의 출발점이 되었다. 또 씨마스터 300, 씨마스터 1000 등 혁신적인 다이빙 위치들은 깊은 수심에서도 뛰어난 기술력과 신뢰성을 보여주어 전 세계 다이빙들에게 각인되었다. 이후 1990년대 들어 오메가는 다시 한번 다이빙 위치 디자인의 한계를 확장한다. 지금의 아이콘 컬렉션으로 자리 잡은 씨마스터 다이버 300M을 선보인 것이다. 이를 계기로

오메가는 씨마스터 컬렉션을 통해 다이빙 위치의 명가로서 명성을 쌓아왔다. 2005년, 오메가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디자인이 특징인 또 하나의 다이빙 위치를 선보인다. 최초의 플래닛 오션 모델의 탄생이었다. 블랙 다이얼, 15분 단위 아라비아숫자, 화살촉 모양 핸즈, 그리고 내부 링을 적용한 다이빙 스케일 베젤 등 디자인적으로는 이전 다이빙 위치인 씨마스터 300에서 영감을 받았다. 대신 기술적으로 한 단계 더 성장했다. 씨마스터 다이버의 300m 방수 성능을 2배 확장해 수심 최대 600m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설계한 것.

1 오메가의 다이빙 유산을 이어갈 새로운 4세대 플래닛 오션. 왼쪽부터 오렌지·블루·블랙 베젤 버전.
2 13.79mm 두께로 기존 3세대 모델보다 더 얇아진 신형 4세대 플래닛 오션.

이는 오메가 다이빙 위치 역사에 중요한 이정표가 된다. 2009년에는 리퀴드메탈™을 도입했다. 이 소재는 블랙 세라믹 베젤의 다이빙 스케일 제작에 활용되어 우아한 미감과 뛰어난 스크래치 저항성, 지속적인 안정성을 제공하며 케이스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플래닛 오션 2세대를 출시한다. 세라믹 베젤과 리퀴드메탈™ 기술, 광택 다이얼,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백, 그리고 칼리버 8500을 장착하는 등 많은 디자인적,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또 한번 이뤄냈다. 특히 8500 칼리버에 실리콘 SI14 밸런스 스프링을 통합해, 자

기 저항 성능을 크게 향상시켰다. 2014년에는 드디어 플래닛 오션의 아이콘화한 오렌지 베젤을 세라믹으로 재현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바로 플래티넘 소재의 플래닛 오션 GMT 모델에 적용해 선보인다. 케이스 백에는 이를 기념하는 ‘World Premiere’라는 문구를 새겼다. 이후 2016년, 무브먼트 자체의 혁신을 이룬 플래닛 오션 3세대를 출시한다. 스위스 시계업계 최고 수준의 정확성, 성능, 자기 저항력을 갖춘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무브먼트를 탑재한 것이다. 여기에 새로운 사이즈와 슬림해진 18K 세트나™ 골드 케이스를 적용하고 세계 최초의 세라믹 베젤 링을 선보이는 등 다양한 미학적 업데이트를 이뤘다. 같은 해 플래닛 오션 딥 블랙 모델도 출시하며 600m/2000ft/60bar의 수압을 견딜 수 있는 세라믹 단일 소재 다이빙 위치 4종으로 컬렉션을 완성했다. 그리고 2019년 출시한, 지구에서 가장 깊은 곳에 도달한 혁신적 시계 울트라 딥을 토대 삼아 2022년 새로운 플래닛 오션 컬렉션으로 재탄생시킨다. 이 놀라운 다이버 위치는 6,000m(20,000ft) 방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ISO 6425 기준과 포화 잠수(saturation diving) 인증을 모두 충족하며 다이버 컬렉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계기가 된다. O-MEGASTEEL이라는 고성능 스테인리스 스틸 합금으로 제작했으며 뛰어난 강도, 더 밝은 색감, 우수한 내식성,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광택을 자랑한다.

4세대 플래닛 오션의 탄생

2025년 오메가는 드디어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Seamaster Planet Ocean) 4세대 모델을 출시하며 다이빙 위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번 4세대 모델에서는 2005년 플래닛 오션 출시 당시로 돌아가 씨마스터가 출시되었던 1980~90년대 모델들을 검토하고 구조적 콘셉트를 일부 차용했다. 그 결과 클래식한 플래닛 오션 디자인과 현대적 감각을 조화롭게 담아냈으며, 컬렉션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오렌지 컬러 역시 부활할 수 있었다. 이 생동감 넘치는 색상은 오메가의 오랜 세라믹 제작 기술로 완성했다. 시계 케이스 디자인에는 날카롭고 각진 표면을 강조한 새로운 ‘피타드(fitted)’ 접근법을 적용했다. 메인 보디와 내부 티타늄 링을 포함한 두 부분으로 제작되어, 전체적인 라인이 더 날카롭고 정제된 에지를 보여줄 뿐 아니라, 심해 다이빙 시 시계를 완벽하게 밀폐하는 데 필요한 강도를 제공한다. 이 내부 링은 2005년 플래닛 오션과 1960년대 씨마스터 300에서 이미 미학적 요소로 자리 잡았다. 오메가는 이번 새로운 기술 설계를 통해 기존의 아이콘화한 외관은 유지하면서 600m 방수 성능에 적합한 기능적 역할까지 겸비하도록 고안한 것이다. 신형 플래닛 오션은 지름 42mm로 2005년 출시된 오리지널 모델과 동일한 사이즈로 제공된다. 전면의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과 케이스 및 베젤 전반에 걸친 세심한 디자인 개선 덕분에 이전 모델

3 시그처인 화살촉 모양 핸즈와 볼드한 인덱스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존보다 각진 형태로 다듬은 아라비아숫자가 조화를 이룬다.
4 각 모델의 케이스 보디에 적용한 티타늄 소재의 내부 링. 다이빙할 때 시계를 완벽하게 밀폐하는 역할을 한다.

보다 슬림하고 평평한 실루엣을 구현할 수 있었다. 기존 3세대 표준 모델의 16.1mm 두께와 비교하면 이번 신제품은 전체 구조를 재설계해 13.79mm의 더욱 얇은 두께로 완성했다. 또 새로운 디자인에 맞추어 지난 20년간 컬렉션의 특징적 요소 중 하나였던 헬륨 배출 밸브(helium escape valve)를 제거해 착용감을 개선했다. 케이스 디자인이 변화함에 따라 브레이슬릿 역시 새롭게 구성했다. 케이스와 일체감 있는 디자인으로 구현하고 플랫 링크 구조를 적용했으며, 외측 두 줄은 브러시드 마감, 중앙 한 줄은 폴리시드 마감으로 마무리했다. 씨마스터의 전통을 지킨 브레이슬릿은 전보다 슬림해진 형태로 최적의 착용감을 제공한다. 총 6단계로 길이 조절이 가능하며, 오메가의 익스트라 다이버 익스텐션(Extra Diver Extension)을 적용해 다이버의 편의성을 높였다. 폴딩 버클을 더한 러버 스트랩 옵션도 포함되어 있다. 새로운 플래닛 오션 컬렉션의 모든 다이얼은 매트 블랙으로 완성했다. 화살촉 모양 핸즈와 슈퍼루비노바®로 채운 볼드한 인덱스 등 기존 시그너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아라비아숫자 타이포그래피를 도입했다. 미묘한 변화지만 이 숫자 타이포그래피는 오픈워크(open-work) 구조와 보다 각진 형태로 다듬어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의 날렵한 디자인과 조화를 이룬다. 또 이는 초기 플래닛 오션 모델에 사용한 오픈워크 숫자를 기리는 요소이기도 하다.

씨마스터의 진화





각 다이얼의 오메가 로고는 로듐 도금 처리했으며 전사 문구는 화이트로 마무리했다. 최신형 플래닛 오션은 사파이어 크리스털 대신 그레이드 5 티타늄으로 제작한 스크루인 케이스 백을 채택했다. 이로 인해 시계의 전체 치수가 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고 무게는 줄어들었으며, 강도는 더욱 향상되었다. 케이스 백은 웨이브 모양의 가장자리를 갖추었으며, 중앙에는 'PLANET OCEAN'과 'SEAMASTER' 각인, 방수 가능 표기, 그리고 오메가의 상징인 해마(seahorse) 엠블럼이 새겨져 있다. 기술적으로도 많은 업데이트를 거쳤다. 모든 신형 플래닛 오션 모델에는 오메가 코-엑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12를 장착했다. 이 무브먼트는 이전 울트라 딥 모델에도 사용된 바 있다. 자동 와인딩 방식으로 60시간 파워 리저브를 제공하며, 스위스 계측학연방학회(METAS)가 인증한 최고 수준의 정확성, 성능, 자기 저항력을 갖추었다. 이번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은 세 가지 다른 컬러와 조합의 버전으로 출시된다. 오렌지 모델은 매트 블랙 컬러 다이얼에 바니시 처리한 아라비아숫자를 적용하고, 화이트 하이버리드 세라믹 다이빙 스케일로 채운 새로운 오렌지 세라믹 베젤(ZrO₂)을 매치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블랙 러버 스트랩, 오렌지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다. 블루 모델은 매트 블랙 컬러 다이얼에 화이트 에나멜 다이빙 스케일을 채운 블루 세라믹 베젤을 장착했으며,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또는 블랙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블랙 모델은 화이트 에나멜 다이빙 스케일로 채운 블랙 세라믹 베젤을 탑재했으며, 역시 스테인리스 스틸 브레이슬릿 또는 블랙 러버 스트랩 중 선택 가능하다.

1 다이버 위치의 가독성을 높이는 슈퍼루미노바(®)로 채운 인덱스와 핸즈.
2 전면 플랫 사파이어 크리스털 케이스 및 베젤 전반에 걸친 세심한 디자인 개선으로 이전보다 슬림하고 평평한 실루엣을 자랑한다.
3 4세대 플래닛 오션 블랙 베젤 버전.
4 4세대 플래닛 오션 오렌지 베젤 버전의 측면. 케이스의 전체적인 라인을 더 날카롭게 다듬어 애지를 가미했다.
5 스틸·오렌지·블랙 러버 스트랩 옵션을 제공한다.



“

오메가에게 바다는 1932년 첫 다이빙 위치를 선보인 이래로 끊임없는 영감의 원천이었습니다”
by 오메가의 사장 겸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

공유된 여정, 무한한 영감

오메가는 새로운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의 출시를 기념해 브랜드 앰배서더 애런 테일러-존슨(Aaron Taylor-Johnson)과 글렌 파월(Glen Powell)이 함께한 글로벌 캠페인 <콜 오브 더 오션(Call of the Ocean)>을 공개했다. 이 캠페인은 바다처럼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이 전하는 영감과 가능성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 미지의 심해를 탐험하듯, 시계 제작의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이든, 플래닛 오션은 언제나 '바다의 부름(Call of the Ocean)'에 응답하며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왔다. 배우 애런 테일러-존슨은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통해 드라마틱한 캐릭터와 에너제틱한 액션을 모두 소화해왔다. 캠페인에서 그는 새로운 블루 모델을 착용했다. 글렌 파월은 액션, 드라마, 로맨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강렬한 카리스마와 폭넓은 연기력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오메가 다이빙 헤리티지를 상징하는 시그니처 오렌지 컬러의 새로운 플래닛 오션 모델을 착용했다. 캠페인에 이어 상징적인 플래닛 오션 컬렉션의 4세대 리디자인을 공식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마이애미에서 특별한 론칭 이벤트를 개최했다. 이 행사에는 글렌 파월을 비롯해 배우이자 오메가의 프렌즈 콜먼 도밍고(Colman Domingo), 남작 장대높이뛰기 세계기록 보유자이자 오메가 스포츠 앰배서더 몬도 두플란티스(Mondo Duplantis) 등 여러 오메가 프렌즈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새롭게 설계된 플래닛 오션 위치의 각진 라인에서 영감받아 마이애미 비치의 현대적 공간 '파에나 포럼(Faena Forum)'에서 생동감 있게 펼쳐졌다. 이곳은 원통형 구조와 기하학적 창문 디자인으로 유명하며, 독창적인 건축미를 자랑한다. 미니멀한 인테리어로 구성된 실내에서는 양쪽으로 바다 전망이 펼쳐져 플래닛 오션 캠페인을 이끄는 '바다의 부름' 테마를 더욱 생생하게 느낄 수 있었다. 행사 시작부터 벽면에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영상이 투사되었고, 타임피스 컬렉션과 조화를 이루는 블루와 오렌지 컬러 테마가 공간 전반에 적용되었으며, 행사장 중앙에는 플래닛 오션 컬렉션을 전시했다.

영감의 원천, 바다를 위하여

스위스 위치메이커 오메가는 마이애미에서 열린 글로벌 씨마스터 이벤트에서 씨마스터 해마 구조 센터(Seamaster Seahorse Rescue Center)와의 파트너십을 공식 발표했다. 해마는 해양 생태계의 생물 다양성 유지와 건강한 해양 환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탈리아 마리나 디 라벤나(Marina di Ravenna)에 위치한 이 센터는 아드리아해에서 발견되는 멸종 위기 해마 종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해당 프로젝트는 세계적인 야생동물 보호 단체인 IFAW(International Fund for Animal Welfare)의 지원도 받고 있다. 오메가와 IFAW의 지원을 통

6 4세대 플래닛 오션 론칭 이벤트가 열린 마이애미 메뉴.
7 씨마스터 플래닛 오션 컬렉션 출시를 기념해 글로벌 캠페인 <콜 오브 더 오션>을 함께한 오메가 앰배서더 글렌 파월.
8 오메가 사장 겸 CEO 레이날드 애슐리만(Raynald Aeschlimann)과 IFAW 사장 겸 CEO 아제딘 다운스(Azzedine Downes).
9 오메가의 지원 속에서 치료와 회복 중인 수조 속 해마의 모습.

해 센터는 2024년에 총 1천2백 마리의 해마 구조 및 재활에 성공했다. 또 이번 후원으로 센터는 운영을 확장해, 기존 구역을 연중 상시 운영 가능한 구조 시설로 개조할 수 있었다. 새롭게 설치된 수조는 해마의 치료와 회복을 위한 시설을 한층 강화해준다. 이 지원을 통해 향후 매년 약 2천 마리의 해마를 구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된 해마는 전문적인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을 거친 뒤 태그를 달고 보호 구역으로 방류되며, 멸종 위기종을 분류하는 IUCN 적색 목록(Red List)에도 중요한 데이터를 제공할 전망이다. 문의 02-3479-6025 에디터 **성정민**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바쉐론 콘스탄틴
패트리오니 문페이즈 레트로그레이드 데이트
다이얼 상단에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는 반원의 레트로그레이드를, 바로 아래
6시 방향에서는 문페이즈 디스플레이를 확인할
수 있다. 8천2백50만원. 문의 1877-4306
파넬라이 루미노르 마리나 PAM03314
지름 44mm의 스틸 브러시드 케이스와
무광 화이트 다이얼에 시인성을 높여줄
슈퍼루미노바® 인덱스를 적용했으며,
3일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P.980 자동 무브먼트를 장착했다.
1천2백47만원. 문의 02-2118-6256
오데마 피게 로열 오크 셀프와인딩 퍼페추얼
캘린더 그랑 타피스리 패턴 다이얼에 날짜와
월, 일을 확인할 수 있는 3개의 카운터와
달의 위상 인디케이터를 적용했으며, 칼리버
7138을 장착했다. 가격 미정 02-543-2999
에거 르콜트르 리베르소 트리뷰트 모노페이스

1931년 출시한 최초의 리베르소 디자인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다. 은은한 실버 그레이
다이얼과 블랙 미닛 트랙 마커의 조화가 역동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201
오메가 칸스텔레이션 밤하늘 별의 움직임에서
영감받아 지름 41mm 스틸 케이스에 실제 천문석
조각으로 제작한 그린 다이얼, 그린 세라믹 베젤을
세팅했다. 1천4백만원대. 문의 02-3467-8632
까르띠에 산토스 드 까르띠에 워치 1백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진화해온 모델로 모던한 디자인과
탁월한 균형미, 편안한 착용감을 자랑한다.
새틴 피나싱 그레이 다이얼에 로마숫자 인덱스와
듀얼 타임존을 갖췄으며, 퀵 스위치 시스템을
적용해 스틸 브레이슬릿으로 쉽게 교체할 수 있다.
1천5백만원. 문의 1877-4326
IWC 인제니어 오토매틱 블랙 다이얼을 제외한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 아워 마커, 핸즈까지
모두 골드로 완성했다. 6천7백30만원.
1877-4315 에디터 김하얀

Grand Legacy

매해 조금씩 변모하며 오랜 시간 명맥을 이어온 클래식 위치는 저마다의 브랜드를 상징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YONG

이진영 아트 디렉터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불멸의 컬렉션으로 재탄생하다



© Julien Thomas Hamon

오랜 역사와 헤리티지를 지닌 워치·주얼리 메종 까르띠에는 1970년대부터 체계적으로 보존해온 컬렉션을 구축했다. 이 고귀한 피스들을 살펴보면 1백70여 년에 걸친 메종의 창의성과 장식 예술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걸쳐 진화해온 역사를 알 수 있다. 까르띠에 컬렉션은 1989년 파리 프티 팔레(Petit Palais)에서 열린 첫 전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권위 있는 기관의 초청으로 다수의 대규모 전시를 선보여왔다. 그리고 올해, 이탈리아 로마 카피톨리니 박물관 팔라초 누오보에서 기획 전시를 통해 까르띠에 컬렉션을 소개하는 〈까르띠에와 신화, 카피톨리니 박물관 특별전(Cartier & Myths at the Capitoline Museums)〉을 개최한다. 까르띠에는 19세기 중반부터 오늘날까지 고대 그리스, 로마의 미학과 상징 세계를 꾸준히 탐구하며 수천 년에 걸쳐 이어진 고대 모티브를 독창적이면서도 현대적인 주얼리로 재해석해왔다. 오랜 탐구의 연장선이 바로 카피톨리니 박물관 특별전이다. 이 전시를 통해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상상과 이미지가 19세기와 20세기에 어떻게 변화되어왔는지 살펴볼 수 있다. 더불어 까르띠에의 상징적인 작품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가 어떻게 표현되었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더욱 특별한 것은 전시 공간인 로마의 카피톨리니 박물관 팔라초 누오보의 소장품과 역사적 가치에 훌륭한 큐레이션이 더해졌다는 사실이다. 본 전시는 주얼리 역사가 비앙카 카펠로(Bianca Cappello), 고고학자 스테판 베르제(Stéphane Verger), 카피톨리니

감동관 클라우디오 파리지 프레스치체(Claudio Parisi Presicce)가 공동 기획하고, 로마 시청(Roma Capitale) 문화부와 카피톨리니 문화유산감독청이 주최한다. 또 메종 까르띠에가 협력하고, 제테마 프로젝트 쿨투라(Zètéma Progetto Cultura)가 지원한다. 전시 디자인은 살뱅 로카(Sylvain Roca)가 맡았으며, 디자인 거장 단테 페레티(Dante Ferretti)가 특별한 크리에이티브를 더했다. 전시가 열리는 팔라초 누오보는 캄피돌리오 언덕에 자리한 곳으로 1733년 12월, 교황 클레멘스 12세(Clement XII)가 최초 공개한 카피톨리니 박물관의 건물이다. 상설 전시에서는 대리석 조각 컬렉션을 선보이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알레산드로 알바니 추기경의 컬렉션에서 옮겨온 작품으로 유럽 예술 언어의 형성에 결정적 역할을 한 고대 조각들이다. 본 전시는 이러한 고대 조각들 옆에 까르띠에 주얼리 작품들을 나란히 배치하며 고대 모티브가 주얼리라는 현대적 언어에 어떻게 차용되고 재해석되었는지에 주목한다. 20세기 초부터 메종의 상상력을 풍요롭게 한 다채로운 신화적 모티브를 살펴볼 수 있는 것. 특히 팔라초 누오보가 소장하고 있는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아폴론과 헤라클레스, 제우스와 데메테르 등 그리스 로마 신화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고대 조각이 까르띠에 컬렉션의 주얼리와 나란히 자리한다. 관람객은 상설 컬렉션에서 까르띠에 작품에 영감을 준 고대의 원형을 발견할 수 있다. 그뿐 아니라 로마시대 주얼리와 연관 속에서 제작 기법과 공정을 조명하며 장인 정신을 깊이 있게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로마의 명장 카스텔라니(Castellani) 같은 19세기 유명 컬렉터이자 금세공인인 '파스티슈(pastiches, 고대 양식을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작품)'부터 신고전주의적 갈란드 스타일, 전후 시대 장 콕토(Jean Cocteau)에

1 까르띠에의 갈란드(Guirlande) 스타일을 잘 보여주는 스토타커 브로치, 1907.
2 카피톨리니 박물관에서 진행되는 〈까르띠에와 신화, 카피톨리니 박물관 특별전〉 모습.
3 상징적인 고대 모티브에서 착안한 까르띠에 메두사 헤드 펜던트, 1906.
4 그리스, 로마의 상징인 올림피아를 다이아몬드와 진주로 재해석한 티아라, 1907.
5 조각상과 주얼리를 나란히 배치해 전시의 이해를 돕고 웅장한 느낌을 더했다.

© Julien Thomas Hamon



까르띠에가 1백7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쌓아온 메종의 유산을 재조명하는 컬렉션을 이탈리아 로마에서 선보인다. 19세기 고대 그리스 로마의 역사를 주얼리의 미학으로 선보이는 전시, 〈까르띠에와 신화, 카피톨리니 박물관 특별전(Cartier & Myths at the Capitoline Museums)〉.

LUXE



DAZZLE

2026년 새해를 상징하는 것. 붉은 말, 흰색,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블랙과 주얼리의 만남.

PHOTOGRAPHED BY JUNG JIEUN



(왼쪽 페이지 위부터) 이탈리아 엘레강스의 정수를 대표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의 이어링으로 화이트 골드에 다이아몬드 1.48캐럿과 그린 에메랄드를 매치해 포인트를 주었다. 4천8백2백만원. 화이트 골드 소재에 페어 셰이프 에메랄드 1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에메랄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1개와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해 완성한 디바스 드림 네크리스 6백78만원. 모두 불가리.

(위부터) 물방울 모티브 주위를 옐로 골드 비즈로 장식하고 다이아몬드 16개를 총총히 세팅한 세행 보행 스몰 스타드 이어링 1천만원대, 옐로 골드 체인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세행 보행 빈티지 링크 네크리스 5천만원대, 옐로 골드 소재 드롭 모티브 2개에 라운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세행 보행 옐로 골드 더블 모티브 링 1천만원대, 옐로 골드 소재 드롭 모티브를 모아 한 송이 플라워로 만든 세행 보행 빈티지 링 3천만원대, 체인 모티브의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파베 세팅한 물방울 모티브로 완성한 세행 보행 링크 스몰 브레이슬릿 3천만원대 모두 부쉐론. 디올 하우스의 쿠티르적 터치를 연상시키는 옐로 골드로 만든 패턴에 블랙 래커를 매치해 포인트를 준 마이 디올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아방가르드한 감각을 더한 옐로 골드 소재 밴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투보가스 브레이슬릿 2천60만원 불가리.

(위부터) 18K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세팅한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의 볼드한 밴드 한
부분에만 사선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라지 링,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러쉬 스몰 링,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러쉬 후프 이어링, 18K 베이지
골드의 코코 크러쉬 브레이슬릿,
18K 베이지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미니 브레이슬릿, 18K 옐로 골드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샹스 드 샤넬 메달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위부터) 패션 하우스의 쿠티르적 터치가 돋보이는 컬렉션으로 옐로 골드 소재에 화이트 골드를 매치하고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마이 디올 초커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화려한 디바에 경의를 표하는 디바스 드림 컬렉션. 로즈 골드 소재에 각각 머더오브펠과 다이아몬드 세팅으로 이뤄진 부채꼴 모티브 3개로 완성한 네크리스 2천9백30만원 불가리.



(위부터) 화려함과 우아함을 상징하는 다이몬드 컬렉션. 18K 화이트 골드에 총 5.04캐럿, 32개의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를 세팅해 반짝이는 물방울 같은 실루엣을 완성한 하이 주얼리 이어링 9천1백65만원, 화이트 골드에 총 2.587캐럿 페어 셰이프 다이아몬드 16개를 세팅한 물방울 펜던트와 총 0.47캐럿의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8개를 더한 체인으로 완성한 다이몬드 하이 주얼리 네크리스 5천8백29만원 모두 쇼파드.



(위부터) 한쪽은 그레이 머더오브펠, 뒤집으면 기요세 로즈 골드, 두 가지 방식으로 착용 가능한 빈티지 알함브라 리버서블 링, 기존 알함브라 네크리스와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롱 네크리스 단독 혹은 더블로 연출 가능하며, 15 모티브, 11 모티브 롱 네크리스 및 4 모티브 브레이슬릿으로도 연출 가능한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 기요세 로즈 골드와 그레이 머더오브펠, 화이트 머더오브펠을 매치한 매직 알함브라 트랜스포머블 롱 네크리스에서 분리해 완성한 4 모티브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빈클리프 아펠.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로즈 골드 소재에 머더오브펠과 다이아몬드로 장식해 여성미를 유쾌하고 세련되게 표현한 디바스 드림 이어링 7백55만원 **불가리**, 2개의 밴드를 이어주는 듯 연결 고리를 상징하는 힌지가 포인트. 로즈 골드에 60개 다이아몬드 0.8캐럿을 세팅한 투게더 초커 네크리스, 로즈 골드 밴드 2개의 끝부분에 50개의 다이아몬드 약 0.6캐럿을 세팅한 투게더 브레이슬릿, 로즈 골드 링에 다이아몬드 약 0.2캐럿을 세팅한 투게더 브레이슬릿, 18K 로즈 골드 밴드 2개를 하나로 엮어 완성한 투게더 링, 18K 로즈 골드 밴드 1개와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밴드 1개를 하나로 엮은 투게더 링 모두 가격 미정 **포멜라토**, 옐로 골드에 화이트 골드로 포인트를 주어 완성한 마이 디올 링 모두 가격 미정 **디올 파인주얼리**.



(위부터) 특유의 리본 모양이 특징인
틸다의 보우 컬렉션의 이어링으로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5.87캐럿을 세팅했다.
라운드와 바게트 컷 다이아몬드 총 3.68
캐럿을 세팅한 링,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14.1캐럿을 세팅한 네크리스, 라운드
다이아몬드 총 6.77캐럿을 세팅한
브레이슬릿 모두 가격 미정 **그라프**

모델 Maria Valiullina
(Jennifer Management)
헤어 이경혜
메이크업 조혜민
스타일리스트 채한석
스타일리스트 어시스턴트 김현민
어시스턴트 에디터 신정임
에디터 성정민



불가리 02-6105-2120
사넬 파인 주얼리 080-805-9628
부쉐론 080-822-0250
디올 파인주얼리 02-3280-0104
반클리프 아펠 1877-4128
포멜라토 0030-8321-0441
쇼파드 02-6905-3390
그라프 02-2150-2320

Get The List



TIFFANY & CO.
1962년 아카이브에서 발견한
클래식한 브레이슬릿에서
영감받은 하드웨어 컬렉션으로
옐로 골드 체인 스트랩에 볼드한
볼과 자물쇠 모티브가 포인트를
주는 하드웨어 랩 브레이슬릿
가격 미정 **티파니**. 문의 1670-1837



LOUIS VUITTON
카우하이드 트리밍 장식 카프
스킨 소재에 시그니처 모노그램
패턴을 더하고 청키한 실버
색상의 체인 및 아이코닉한
S락 등 디테일을 부여한
빈티지한 로큰롤 감성의 알마
BB 백 5백72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OMEGA
클래식하고 현대적인 밀라노
감성을 그대로 담은 2026
밀라노 동계 올림픽 기념 에디션
씨마스터 37MM 3천만원대
오메가. 문의 02-3479-6025



PRADA
우아하고 타임리스한 디자인에
글로시한 마감과 크로스 해치 텍스처가
개성을 부여하는 갤러리아 페이턴트
사피아노 가죽 미니 백 가격 미정
프라다. 문의 02-3442-1831



CHANEL FINE JEWELRY
(위부터 차례대로)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18K 화이트 골드 소재의
코코 크러쉬 미니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에 숫자
5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이터널
N°5 링, 18K 베이지 골드 소재의
퀵링 모티브에 다이아몬드를
간헐적으로 세팅한 코코 크러쉬
스물 링, 18K 옐로 골드 소재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코코
크러쉬 스물 링 모두 가격 미정
샤넬 파인 주얼리.
문의 080-805-9628



BOUCHERON
(위부터) 화살 고유의 강인함과
섬세함을 담은 플래쉬 컬렉션
다이아몬드 링으로 라운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1백44개와
테이퍼드 컷 화이트 다이아몬드
36개를 세팅했다. 4천만원대.
화이트 골드에 총 1.68캐럿 라운드
컷 다이아몬드 1백77개를 세팅한
플래쉬 다이아몬드 브로치
3천만원대. 모두 **부세론**.
문의 080-822-0250.
미드 힐 슬링 백 가격 미정
구찌. 문의 02-3452-1921



MONCLER
오가닉 옥스퍼드 코튼 소재로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스탠다드
셔츠 1백11만원, 재생 폴리에스터
소재의 쇼트 다운 재킷으로
퀵링 패턴이 풍성한 실루엣을
연출해주는 카라마네 패딩
2백70만원 모두 **몽클레르**.
문의 0030-8321-07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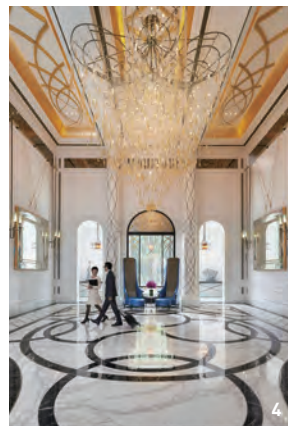


IWC
지름 44.2mm 18K 레드 골드
케이스에 실버 도금 다이얼과
브라운 엘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매치해 클래식함을 자아내는
포르투가저 퍼페추얼 캘린더
7천만원 **IWC**. 문의 1877-4315
에디터 성경민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Mandarin Oriental Taipei)

시간의 층위에 깃든 섬세한 아늑함

잠자는 분위기 속에서도 활기가 흐르는, '열려 있는 국제도시'의 면모를 지닌 타이베이. 대만의 메트로폴리스에서 가장 단단하게 여문 글로벌 호텔 브랜드를 꼽자면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2014년 봄 문을 연 이 호텔은 교통이 편리하고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아레나, 고궁박물관 등 명소로 이동하기에도 수월한 동쪽 송산구(松山區)에 자리하면서 동서양을 아우르는 미식과 '웰니스의 오아시스'로 여겨지는 스파 시설 등을 내세워 두꺼운 팬층을 만들어왔다. 언뜻 화려한 듯하면서도 요란하지는 않은, 정제된 세련됨을 품은 디자인 감성도 꾸준한 인기에 한몫을 했을 터다. 짧게나마 그 매력의 진면목을 살펴봤다.



1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의 야외 수영장. 한국인 기준으로는 연중 따뜻한 대만의 대표 럭셔리 호텔다운 도심형 웰니스 스파로도 유명하다. **2** 타이베이 동쪽 중심가 송산구(松山區)에 2014년 봄 문을 연 이 호텔은 타이베이 101, 타이베이 아레나, 고궁박물관 등 명소로 이동하기에 편리하며 낚샤 아시장이 근처에 있다. **3**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감성의 적절한 조화가 돋보이는 객실 디자인. 홍콩 기반의 차다 시엔비에다 & 어소시에이츠 (Chhada Siembieda & Associates)가 인테리어를 맡았다. **4** 체코 작가 타파나 드보라코바가 9개월에 걸쳐 빛아낸 크리스탈 샹들리에가 공간에 화사함을 불어넣는 로비. 호텔 곳곳에 예술 작품과 감각적인 오브제가 많은데, 박승모, 이재호, 김찬일 등 한국 작가들의 작업도 눈에 띈다. **5** 8년 연속 미술쟁 별을 따낸 광동식 요리 전문 레스토랑 아거의 XO 소스를 곁들인 바닷가재 요리. 대만 평후 청정 지역의 랍스터를 활용했다. **6** 이탈리아 레스토랑 벤코트의 오징어 타코 요리. ※ 1~6 이미지 제공: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 ※ 주소 158 Dunhua North Road 10548 Taipei, Taiwan

주말을 틈탄 교외행으로 인해, 체크인 며칠 전에 미리 무거운 짐만 일부 떨구려고 잠깐 들르게 된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 마치 정중하게 호위하듯 가지런히 늘어선 키 큰 나무들을 지나 입구로 향하는 길에서 차창 밖 시야에 들어오는 호텔 외관은 유난스레 튀지는 않지만 브랜드 특유의 목작한 존재감을 은은하게 뽐아냈다. 바깥에 대기하고 있던 컨시어지 담당에게 여행 가방만 건네고 바로 떠났지만, 순간 뇌리에 각인된 키워드를 꼽자면 '이국적', '안정적' 같은 형용사를 동원해야 할 것 같다. 물론 대만 자체가 이미 '타국'이지만, 유럽 스타일의 고전적인 건축 외관(WATG 디자인)은 지금도 그렇거니와 이 호텔이 문을 열었을 당시인 10여 년 전(2014년)엔 꽤 이색적으로 여겨졌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절로 신뢰감이 드는 유연하고 신속한 서비스를 대하니, 이틀쯤 뒤에 제대로 마주할 호텔의 면면이 궁금해졌다.

그리고 타이베이를 다시 찾은 날, 심신이 살짝 고단한 상황에서 체크인 시간 한참 전에 도착했다. 한국인 기준에서는 꽤 따뜻한 날씨지만, 현지인들은 쌀쌀하다고 엄살을 떠는 초겨울인 만큼, 호텔 로비로 들어서자 연말의 설렘을 전해주는 크리스마스 장식부터 반겨줬다. 그리고 공간을 유려하게 수놓고 있는 커다란 크리스탈 샹들리에(높이 3.9m)가 눈길을 사로잡았는데, 영롱한 투명함 속 호박색을 섞은 레이스로 된 돛 고운 자태가 인상적이었다. 체코 작가 타파나 드보라코바

(Tafana Dvorakova)가 9개월에 걸쳐 빛아낸 작품으로 무려 5만 개의 크리스탈 비즈를 엮어 완성했다. 로비에는 알루미늄 와이어를 소재로 활용한 금속 바이올린과 은색 호른 모양의 조각도 놓여 있는데, 알고 보니 한국 작가 박승모의 작업이었다. 지상 14층(실제 숫자 표기는 17층까지)에 이르는 호텔의 공간에 무려 1천7백 점이 넘는 다양한 예술 작품이 포진하고 있어, 내부에서도 일종의 '아트 산책'이 가능하다.

다채로운 글로벌 미식이 하나의 호텔 공간에 필자가 호텔에 체크인하러 돌아온 날, '하이 시즌'인지라 세계 각지에서 모여든 투숙객들 덕에 거의 만실인 상황이었는데, 이럴 때 클러 라운지가 요긴하다. 6층에 자리한 '오리엔탈 라운지'는 운영 시간대(아침 7시부터 밤 9시까지) 언제든지 편안한 의자에 앉아 간단한 스낵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독서를 하거나 조용히 업무에 집중하는 이들도 눈에 띄었다. 특히 애퍼티브 타임(오후 2시 30분~4시 30분)에는 맛난 다과를 즐길 수 있고, 해피 아워(오후 5시 30분~7시 30분)에는 거창한 끼니는 아니지만 저녁 식사로도 괜찮을 만한 요기를 할 수 있다는 건 큰 장점이다. 해피 아워의 F & B 메뉴는 과일, 샐러드, 치즈, '단편' 스낵 메뉴가 고정적으로 나오고 '핫 디시'는 메뉴가 거의 매일 바뀌며(필자의 '최애'는 매콤한 순무 요리였다), 주류도 대만을 대표하는 싱글몰트 위스키 '카발란(Kavalan)'을



위시한 증류주, 와인, 샴페인 등의 구성이 알차다.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의 3백3개 객실 가운데 47개 스위트에는 '오리엔탈 라운지' 혜택이 자동적으로 주어지며, 스위트 손님이 아니더라도 예약 시 '클럽 액세스' 옵션을 별도로 추가하면 이 매력적인 라운지를 이용할 수 있다.

물론 라운지 이용권이 있더라도 만다린 오리엔탈 타이베이에서 며칠을 머물면서 호텔이 선사하는 미식 정찬을 건넌뛰기는 쉽지 않을 듯하다. 우선 8년 연속 미술쟁 별을 따낸 광동식 요리의 진수를 맛볼 수 있는 레스토랑이다. '솔 푸드'란 말이 절로 떠오르는 맑고도 진한 수프, 인기 만점 차슈, 바삭하면서도 기름지고 도통한 오리고기 등 광동식 요리의 진수를 보여준다. 좋은 집이라는 뜻을 지닌 레스토랑답게 크고 작은 연회나 디너, 파티, 심지어 일일에 안성맞춤일 듯한 앙증맞은 룸 등 다양한 분위기와 용도의 공간이 살뜰히 마련되어 있다. 항구도시 출신의 이탈리아 셰프가 이끄는 벤코토(Bencotto) 역시 미술쟁 추천 목록에 올라 있는 인기 레스토랑이다. 오픈 키친을 배경으로 요리 내공만이 아니라 이 나라의 음식 인심을 보여주듯 신선한 재료를 풍부하게 쓰는 넉넉함도 함께 선사한다. 이 밖에 아르데코 양식에서 영감을 받은 디자인과 탁월한 주류 셀렉션으로 유명한 M. O. 바, 티타임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인 로비층의 화사한 제이드 카페와 언뜻 보기에도 섬세한 솜씨가 깃든 페이스트리와 초콜릿 등을 접할 수 있는 귀여운 케이크 숍, 그리고 아침 뷔페부터 계절 메뉴를 바탕으로 한 런치도 제공하는 카페 영 도트루아(Café Un Deux Trois)까지, 저마다의 면면이 흥미롭고 상호 보완적이다.

레스토랑의 디자인에 흐르는 전반적인 감성도 그렇지만 호텔 공간은 웨딩으로 명성 높은 대연회장까지 갖춘 웅장미를 품고 있는데도 낯설거나 차갑게 다가오지 않고 세심하게 손질된 아늑한 자택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시간의 흔적이 전혀 '늙음'으로 느껴지지 않는다. 아마도 견고한 소재와 적절한 색상의 디자인 감각도 한몫했을 터다. '행운'과 '부귀'를 상징하는 작약이 부조(relief) 형태로 벽을 수놓은 우아한 객실은 클래식과 컨템퍼러리 감성의 조화가 돋보이는데, 분위기만 편안한 게 아니라 욕조의 물이 차는 속도랄지, 굳이 사람을 거치지 않고도 세탁물이나 우편 등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창구가 되는 발레 박스(valet box) 같은 장치가 머무름의 질을 높여준다. 그러면서도 호텔 내에서 누군가를 대면할 때는 늘 환한 미소를 마주하게 된다.

글 **고성연**(타이베이 현지 취재)



Elevated with Time

돔 페리뇽은 오로지 단일 해의 포도로만 빈티지 샴페인을 선보인다. 오랜 숙성 끝에 생긴 향취는 정점에 오르고, 풍부한 질감과 밀도, 긴 여운을 선사한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건 단순한 산도가 아니다. 세대와 시대를 초월한 미감이 발휘되는 순간이며, 브랜드의 안목과 시간으로 정성껏 빚어낸 향의 본질과 깊이를 담아낸 것이다. 2026년,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도 그렇게 정점에 이르렀다.

2026년 1월에 새로 출시된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는 2008년이라는 특정 시간과 오랜 시간이 빚어낸 숙성의 품미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작품이다. 단일 연도의 포도로만 사용해 그해에만 느낄 수 있는 기후적 특성, 더 나아가 정서를 담기 위한 브랜드의 집념을 느낄 수 있으며, 돔 페리뇽이 그동안 추구해온 시간이 빚어낸 정점을 완벽히 구현한다. 이러한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를 설명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 이상블 라주(assemblage). 향과 맛의 극대화를 위한 돔 페리뇽만의 특별한 블렌딩을 의미한다. 단순한 와인메이킹 기술을 넘어 돔 페리뇽의 미학을 위한 정밀함과 복잡성, 균형을 완성하는 여정이자 돔 페리뇽에서 출시하는 빈티지 와인을 예술 작품으로 꼽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런 의미에서 돔 페리뇽의 신제품인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는 브랜드의 철학을 시각과 후각적으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매개체로서 오랜 숙성을 통해 선보인 첫 플레니튜드 이후 다시 한번 한층 넓어진 향의 구조감과 입체적인 질감, 깊어진 품미를 여실히 드러낸다. 충분한 기다림 끝에 도달하는 궁극의 향과 감각이 아닐 수 없다.

1, 2 돔 페리뇽은 와인메이킹을 위한 소신과 철학을 바탕으로 와인 그 이상의 새로운 것을 창조하며, 정성과 기술, 최상의 블렌딩을 찾아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에 모두 담았다. **3** 플레니튜드 2는 약 15년 이상의 숙성 단계에서 생긴 효모를 통해 생명의 에너지를 부여하고 신비로운 맛과 향을 발현시킨다. 캔디드 레몬과 베르가모트, 화이트 피치와 코코아, 그리고 로스티드 커피 향이 특징이다.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만의 특별한함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2008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당시 프랑스 북동부 지역이자 샴페인의 산지인 샹파뉴는 일조량 부족으로 포도 생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다행히 수확 직전에 기적이라 부를 수 있는 완벽한 날씨를 만났고, 그 시기에 익은 균일한 과육의 포도만 선별해 선명하고 우아한 향을 갖춘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를 탄생시켰다. 2008년은 클래식 샴페인이 지닌 특유의 신선함과 명료함은 물론 깊은 밀도와 구조, 장기 숙성을 거쳐 축적된 향을 더해 샴페인의 의미를 새롭게 확장하는 전환점이라 할 수 있다. 셀러 마스터 뱃상 샤프롱은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

튜드 2를 경험한다는 것은 마치 행성들이 완벽히 정렬하는 기적을 목도한 것과 같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신제품의 전체적인 품미는 캔디드 레몬과 베르가모트, 화이트 피치와 코코아, 로스티드 커피 향이 균일하게 피어오르는 가운데 코끝을 스치는 포도의 신선한 향이 부드럽게 이어지며 숙성 특유의 파스한 향과 미세한 알코올 향이 인상적인 여운을 남긴다. 한 모금만으로도 다층적인 맛을 전하는 돔 페리뇽 빈티지 2008 플레니튜드 2는 돔 페리뇽 소사이터티 세프들의 레스토랑인 정석당, 모수, 밀글스, 술밤에서 상공개했으며, 2026년 1월에 공식 출시된다. 문의 02-2188-5100

에디터 김하얀



1 예거 르쿨트르 리베르소 웹툰 티저 영상 공개 예거 르쿨트르가 아이코닉 타임피스 리베르소를 소개한 웹툰을 제작하고, 글로벌 앰배서더 김우빈이 리베르소의 세계로 초대하는 티저 영상을 공개했다.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와 협업하는 메이드 오브 메이크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필리핀 출신 신예 웹툰 작가 올리브코트와 협업해 1백여 년 역사를 지닌 리베르소의 탄생 스토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웹툰으로 선보였다. 문의 02-6905-3998

2 그라프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 부티크 오픈 영국 하이 주얼리 그라프가 부산 신세계 센텀시티점에 국내 아홉 번째 공식 부티크를 오픈했다. 키네틱 아트에서 영감받아 울룩불룩한 형태의 그라프 아이콘이 교차하며, 하우스 고유의 세라돈(청자빛) 톤과 입체적인 물결 디자인, 프랑스 공방에서 제작한 부클레 패브릭 체어와 카펫으로 공간의 완성도를 높였다. 문의 02-2150-2320

3 포멜라토 포멜라토 체인에 담긴, 얼룩무늬 말의 영혼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메종 포멜라토가 브랜드 철학과 포멜라토의 체인을 소개한다. 말에 대한 애정을 바탕으로 말이 지닌 우아함과 강인함에서 영감을 받아 희귀한 얼룩무늬 말을 뜻하는 단어 '포멜라토'를 브랜드 이름으로 정했으며, 말의 움직임에서 '유동적인 우아함'의 철학을 발견하고 브랜드를 상징하는 골드 체인을 탄생시켰다. 문의 0030-8321-0441

4 반클리프 아펠 조디악 컬렉션 반클리프 아펠에서 1950년대부터 별자리를 모티브로 저마다의 상징성을 담아 선보이는 조디악 컬렉션을 화이트 골드 메달로 새롭게 출시한다. 12개의 별자리에 저마다의 스토리를 담아낸 메달 양면에는 별자리 형상과 로마 숫자로 표현한 기호 및 날짜를 새겼으며, 정교한 양각과 텍스처가 특징이다. 짧은 체인 또는 긴 체인에 슬라이드 방식으로 장착 가능해 다양한 스타일로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877-4128

5 다이아나 벨 에포크 네크리스 펜던트 신제품 출시 이탈리아 하이 주얼리 메종 다이아나가 아이코닉한 벨 에포크 컬렉션의 새로운 펜던트 라인을 출시했다. 영화 필름에서 영감을 받은 기존 벨 에포크 고유의 원과 직사각형 모티브에 현대적인 해석을 더해 선보였다. 다이아몬드 세팅을 배제한 플래인 골드와 다이아몬드 세팅 버전, 2가지로 만나볼 수 있다. 문의 02-515-1924

6 부쉐론 <원터 원더랜드> 캠페인 프랑스 하이 주얼리 브랜드 부쉐론에서 <원터 원더랜드> 캠페인을 공개했다. 장인 정신과 메종의 노하우가 담긴 유서 깊은 시그니처 컬렉션인 세행 보행을 서리가 내려앉은 고요한 풍경에 담아냈다. 앰배서더 한소희가 세행 보행 컬렉션을 자신만의 스타일로 소화한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2-3277-0148

7 쉘린스 2026 봄 컬렉션 쉘린스에서 새로운 아티스틱 디렉터 마이클 라이더의 첫 번째 컬렉션 '2026 봄 컬렉션'을 선보였다. 이번 컬렉션은 시대를 초월한 분위기와 새로운 느낌의 스타일링, 옷을 입는 방식으로 표현하는 에티튜드를 담아냈으며, 마이클 라이더는 스타일링이 '입는 사람의 삶에서 하나의 부분이 되고, 소중한 순간을 담아내며 기억과 삶 그 자체'라고 믿는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새로운 쉘린스 실루엣과 함께 프리 론칭으로 선보인 뉴 러기지 백의 새로운 베리에이션, 우아하고 고급스러운 소프트 트리코프 백도 만나볼 수 있다. 문의 1577-8841

8 시몬스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리뉴얼 오픈 수면 전문 브랜드 시몬스에서 신세계백화점 강남점 매장을 하이엔드 럭셔리 스토어로 리뉴얼 오픈했다. 최상위 매트리스 컬렉션인 '뷰티레스트 블랙' 화보 콘셉트를 모티브로 블랙 & 우드 톤 인테리어로 선보였다. 뷰티레스트 블랙의 인기 모델 켈리, 로렌과 뷰티레스트 월리엄, 헨리 등 스테디셀러 제품을 만나볼 수 있다. 스토어 한쪽 벽면에는 뷰티레스트 블랙에 적용된 '레이어링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집기와 고

유의 스프링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스프링 테스트'를 진행해 시몬스의 기술력과 품질 관리 기준을 직관적으로 경험할 수 있다. 문의 1899-8182

9 프라다 프라다 그룹 아카데미 설립 25주년 기념 프라다가 장인 교육기관이자 인재 양성 아카데미인 프라다 그룹 아카데미의 설립 25주년을 기념했다. 2000년대 초 설립되어 수년간 점진적으로 발전해 현재 기업 교육의 전략적 축으로 자리매김했으며 토스카나, 마르케, 베네토, 움브리아 등 그룹의 여러 생산 현장에서 가족 제품, 의류, 신발 분야의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문의 02-3442-1831

10 글라슈테 오리지널 세레나데 루나 독일 워치메이커 글라슈테 오리지널이 기존 세레나데 루나 컬렉션에서 신제품을 선보였다. 은은하게 빛나는 화이트 자개와 선레이 마감이 돋보이는 담 블루 톤의 27가지 다이얼에 미드나잇 블루 컬러의 악어가죽 스트랩 버전, 베젤, 인덱스, 크라운에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오픈지 컬러의 악어가죽 스트랩 버전, 인덱스와 크라운에만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핑크 컬러의 악어가죽 스트랩, 4가지로 구성했다. 문페이즈 기능을 통합한 칼리버 35 자동 무브먼트로 60시간의 작동 시간을 자랑한다. 문의 031-5170-2261



Art + Culture

세계적으로 어찌면 팬데믹 시기보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더 위기가 감도는 요즘에 글로벌 미술 시장도 침체된 분위기입니다. 그래도 'The Show Must Go on'이라는, 유명하지만 식상한 글귀처럼 어느 영역이든 저마다의 자리에서 고군분투하거나, 화창한 봄날의 도래를 기다리면서 만반의 준비를 다져놓는 모습이 여전히 눈에 띄는 건 인류 특유의 회복 탄력성을 증명하는 것일까요? 모든 것이 소멸되고 모든 것이 다시 시작되는 때를 가리켜 '제와 장미 사이'의 시간이라고 표현한 시인 아도니스의 시집 제목처럼 극단적인 스러짐과 부활을 의도한 것은 아니어도 말입니다. 최근 수년 새 아시아 도시들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을 만한 가치를 부쩍 많이 생산해내고 있습니다. 도시나 국가 차원에서 별이는 '판'도 있지만 시장의 자본으로만 움직이지 않는 작고 유의미한 생태계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이번 <스타일 조선일보> 'Art+Culture' 겨울 스페셜호에는 요즘 들어 문화 예술계의 행보가 가장 활발하고 역동적인 나라 가운데 하나인 대만에서 전개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를 들여다보니

다. 대만의 수도이자 아시아 주요 메트로폴리스인 타이베이에서는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2025가 대중의 호응을 받으면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한 근현대사의 궤적을 지닌 대만의 복잡다단한 서사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세계와 연결 짓고, 개인과 집단의 연약하지만 끝없이 지속되는 '속삭임'의 목소리를 뜻하는 '갈망'이라는 키워드가 관람객들과 진중하게 공명하는 것 같습니다. 대만 중부의 거점 도시 타이중에서는 '글로벌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이는 '뮤지엄브러리(Museumbrary)'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습니다. 자연 속에서 공공 도서관과 미술관을 아름다운 '건축으로 한데 묶어 지역적이면서도 글로벌한 콘텐츠로 대중에게 다가서는 역대급 프로젝트입니다. 이 밖에 올라르고 뿌듯한 먹거리와 우리네 행태에 대해 곱씹게 하는 호주의 푸드 업사이클링,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도시 풍경을 만들어내고 있는 라스베이거스의 현주소도 함께 들여다봅니다. '마음의 양식'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라며, 글 **고성연**(아트+컬처 총괄 디렉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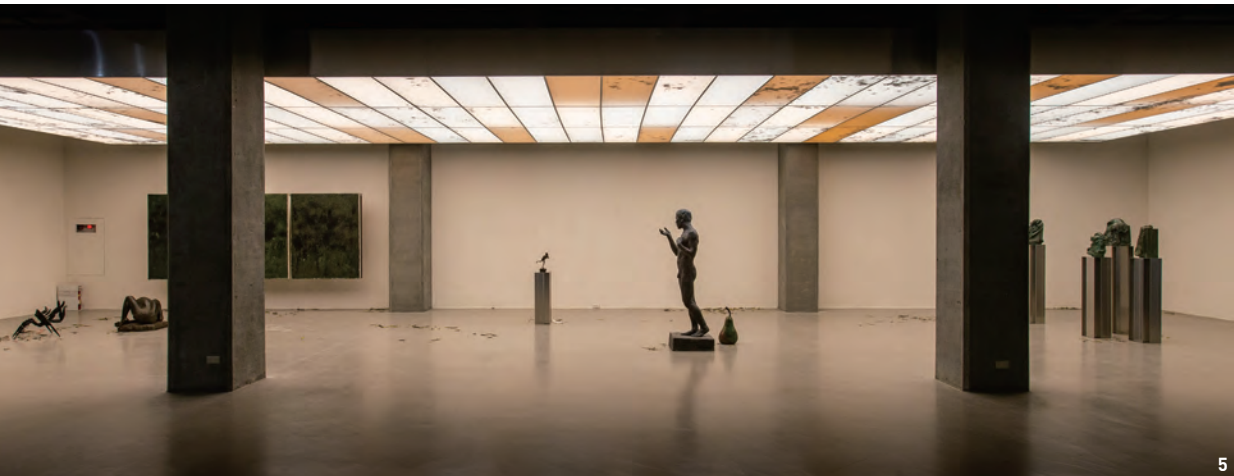
Whispers on the Horizon
地 平 線 上 的 低 吟

1 2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2025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갈망한다

타이베이 중산구 엑스포 공원 부지에 가면 한쪽 끝은 고정하고 다른 끝은 반치지 않은 ‘외팔보’ 형식의 블록이 여러 방향으로 돌출해 있는 하얀색 건축물이 있다. 지금은 증축 프로젝트가 한창 진행 중인 타이베이 시립미술관(TFAM)은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최초의 현대미술관으로 1983년 문을 열었다. 또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생겨난 1998년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이하 TB)의 무대로 나선 이래 30년 가까이 유서 깊은 국제전의 플랫폼 역할을 해오고 있기도 하다. 오랫동안 짝수 해에 열리다가 팬데믹의 여파로 지구촌의 수많은 미술 기관이 그랬듯 ‘홀짝’이 바뀌는 운명을 맞이해 지난 2023년부터는 홀수 해에 개최되고 있는 타이베이 비엔날레. 3개 층에 걸쳐 20,000㎡(약 6천50평)가 넘는 시원한 전시 공간을 품고 있기는 하지만 오롯이 하나의 미술관에서만 펼쳐지는 타이베이 비엔날레가 올해 내건 전시 제목은 〈지평선 위의 속삭임(Whispers on the Horizon)〉. 대만의 복잡다단한 근현대사에 바탕을 두면서도 시공간을 초월하고, 개인과 집단의 서사를 아우르는 울림인 인간 본연의 ‘갈망’을 얘기한다. 지난해 11월 초 막을 올린 TB2025는 전시 기간이 5개월에 가까운 역대급 대장정을 펼칠 예정인데(2026년 3월 29일까지), 주말이면 발 디딜 틈 찾기 힘들 정도로 붐비는 건 물론이고 평일에도 꾸준히 다수의 관람객들이 찾아오는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태평양 서쪽 끝, 일본과 필리핀 사이에 있는 작은 섬나라 대만. 16세기 포르투갈 항해사들 사이에서 경치에 대한 칭송으로 ‘아름다운 섬’이라는 뜻의 ‘포모사(Formosa)’라 불리게 된 이 나라는 잘 알려졌듯 참으로 굴곡진 근현대사를 지니고 있다. 특히 21세기 전까지는 한국과는 많은 구석이 무척 많다. 19세기 말부터 민족을 고갈시켜 했던 전쟁과 식민지화(일본의 지배), 가파른 경제 성장, 민주화의 시련 등 주요 궤적이 비슷하다. 이번 타이베이 비엔날레 기획을 맡은 샘 바더윌과 팀 펠라트(베를린 국립 함부르크 반호프 미술관 공동 관장)는 이런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식민지 역사부터 정체성의 변화하는 흐름까지, 이곳 사람들은 이미 사라져가는 무언가에 발을 들여놓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인상을 주는, 베를린에서 온 감독 듀오는 올해 제14회를 맞이한 타이베이 비엔날레의 대장정을 전시 면적만 110,000㎡(약 3만3천2백 평)가 넘는 미술관 3개 층을 수놓은 기획전 〈지평선 위의 속삭임(Whispers on the Horizon)〉으로 펼쳐냈다. 37개 도시 출신 작가 72명의 작품 1백50점을 선보였고, 회화, 조각, 영화, 사진, 퍼포먼스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34점의 신작과 장소 특장점 설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지평선은 알려진 것과 바라는 것 사이의 경계선, 속삭임은 소통의 연약함, 침묵 속에서도 지속되는 목소리, 지위저도 계속되는 이야기에 다름 아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는 결코 붙잡을 수 없음을 알면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간의 끊임없는 욕망으로서의 ‘갈망’(yearning)이라는 커다란 주제로 향한다.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이며, 연약하면서도 저항적인 속성을 지닌 갈망이다. ‘상상력과



변화로 연결하는 실’ 같은 동력을 지닌 갈망은 아주 작은 속삭임이 멀어진 간극을 메울 수 있고, 아주 작은 몸짓으로도 우리가 세상을 상상하는 방식을 바꿀 수 있음을 얘기하고자 한다. 이번 비엔날레는 풍부한 역사적 맥락과 문화적 깊이를 지녔으면서도 사뭇 대중적이다. 글로벌 팬데믹을 계기로 우리 인류가 서로 가 끼워진 듯하면서도 더 작은 단위로 조개졌다는 이중적 의미를 지닌 스몰 월드라는 주제를 ‘음악’을 매개로 펼친 지난 2023 타이베이 비엔날레가 살짝 ‘마라 땀’ 같은 강렬한 매력을 내보였다면, 2025 버전은 전시장을 관통하는 서사의 흐름이 훨씬 더 보편적이면서도 인상적으로 와닿는다. 단단한 벽 대신 직물 칸막이를 활용해 시야 확보와 동선의 흐름을 유연하게 한 점도 눈에 띄었다. 아마도 현지 관람객들은 그러한 제감도가 더 높았을 것 같다. 커미션 신작, 그리고 주제에 맞춰 선정한 작품과 더불어 세심하게 고른 30여 점의 TFAM 소장품이 대만의 과거와 더 넓은 세계, 그리고 개인의 기억과 집단적 역사를 연결하는 대화의 창으로서 조화로운 울림을 이뤄내는 덕분이다. 단적인 예로 전시의 ‘개념적인’ 축을 이루는 세 가지 오브제로 대만인에게 소박하지만 질은 감성으로 다가오는 ‘일기’, ‘자전거’, ‘꼭두각시’ 인형이 제시된다. 실물은 전시되지 않지만 근현대를 관통하는 다양한 사진과 문서가 상징적 연결 고리로 미묘하게 작동하게 한다는 의도를 담았다. 예컨대 우리나라와 영화 팬들에게도 친숙한 허우샤오셴(Hou Hsiao-Hsien) 감독의 〈인형사〉(1993)에 등장하는 리티엔루(Li Tien-Lu)의 인형은 공예에 헌신한 삶을 통해 시대를 초월한 끈기를 말한다. “우리는 오직 이곳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비엔날레를 만들고 싶습니다. 타이베이를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역사, 언어, 그리고 모순에 귀 기울이는 비엔날레 말입니다.” 샘 바더윌과 팀 펠라트의 설명이다. 글 **고성연**(타이베이 현지 취재)



1 타이베이 비엔날레(Taipei Biennial, 이하 TB) 2025 포스터. **2** 타이베이를 대표하는 최초의 현대미술관으로 1983년 문을 연 타이베이 시립 미술관(TFAM)은 1998년부터 TB의 무대로도 자리매김해왔다. 현재는 2~3년 뒤에 마무리될 증축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의 건물 오른쪽은 새롭게 들어선 카페. **3** 대만의 근현대사를 관통하는 오브제를 떠올리게 하는 사진. CHANG Chao-Tang, ‘Mr. Li Tien-Lu’, 1978, Gelatin silver print, 40.6×50.8cm, Collection of Taipei Fine Arts Museum. **4** 이수경 작가의 ‘번역된 도자기’ 연작이자 커미션 신작 ‘Translated Vase_When Will I See You Again_2025’(2025).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Taipei Biennial 2025. KOFICE kindly supported the international transportation of the work. Iljin Cultural Foundation generously provided financial support for the production of the work. Image courtesy of Taipei Fine Arts Museum. Photo by Lu Guo-Way. **5** 스페인 작가 알바로 우르바노(Álvaro Urbano)의 설치 작업 ‘TABLEAU VIVANT(A Stolen Sun)’(2024/2025). 작가의 설치 작업과 TFAM 소장품이 어우러져 있다. Courtesy of the artist, ChertLüdde, Travesia Cuatro and Marian Goodman Gallery. Image courtesy of Taipei Fine Arts Museum. Photo by Lu Guo-Way. **6** 현재 말라노를 주 무대로 활약하는 작가 모니아 벤 하무다(Monia Ben Hamouda)의 설치 작업 ‘Aniconism as Figuration Urgency (Post-Scriptum)’(2025). 반투명 천 뒤에는 레바논 베이루트 출신의 거장 모나 하툼(Mona Hatoum)의 작업이 커다란 창을 배경으로 자리한다. **7** 이번 비엔날레 중 인스타그램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작품 중 하나로 손꼽히는 이바나 바치크(Ivana Bašić)의 설치 작업 ‘Passion of Pneumatics’(2020~2024). 700×350×150cm. Courtesy of the artist, Albion Jeune and Francesca Minini. This work has been made possible with the generous support of Leonie Lang and Marc Müller. Image courtesy of Taipei Fine Arts Museum.

방대한 비엔날레의 전시 작품을 빈약한 지면에 담는다는 건 하이라이트만 속아내기에도 턱없이 부족한 일이다. 게다가 여유 있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한 점, 한 점 소중한 작업이고 깊이 파고들어야만 의미를 발견하는 경우가 많기에, ‘주요 작품’이라는 단어도 미안하기 짝이 없는 표현이다. 그래서 이번 비엔날레에서 서로 다른 층의 공간에서, 저마다 다른 매체에 담아낸 흥미로운 서사를 풀어내면서 ‘갈망’이라는 키워드의 다면적 메시지를 가만히 곱씹게 하는 1980년대생 작가 3인과의 짙막한 인터뷰를 소개한다.

interview with

치우지안(CIOU Zih-Yan)

1985년생, 대만 마오리 산이 출생



치우지안(CIOU Zih-Yan), ‘위장 비행장(Fake Airfield)’(2025). TB 2025 커미션 신작. Photo by 고성연

#우리의 기억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을까?

미술관(TFAM) 1층 로비에 들어서면 제일 먼저 만나는 커다란 설치 작품은 ‘위장 비행장(Fake Airfield)’(2025)이라는 커미션 신작(2025)이다. 자세히 보면 두꺼운 판지로 만든 비행기로 안에 설치된 작은 모니터를 통해 영상도 흐른다. 제묵처럼 대만의 일제강점기에 일어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 공군을 속이려고 건설된 위장한, 실제로 존재했던 ‘가짜 비행장’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이다. 물론 전시장 다른 판에 위치한 영상에서의 모습처럼 지금은 땅이 농지로 바뀌어 활주로의 흔적조차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대부분의 대만 사람들은 이러한 과거를 알지 못했다. 작가는 과거란 우리 안에 남아 있거나, 흔적의 형태로 존재한다면서 ‘사건’과 ‘기억’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드러낸다.

Q 1985년생으로 위장 비행장이 있던 시기 보다 훨씬 나중에 태어났는데, 어떻게 처음 이 이야기를 접하게 되었나요?

7년여 전, 가족 문제로 원린(雲林)으로 이사를 했고 직장 때문에 커우후(口湖)와 베이강(北港)을 오가며 거의 매일 옛 활주로를 지나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들뜬 한가운데 서 있는 오래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발견했고, 조사 끝에 이곳이 일본 특대급 가미카제의 비행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저를 매료시킨 점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에 일본군이 지역 주민과 전통 사찰 장인을 동원해서 대나무, 종이공예, 그림 기법 등을 이용해 수많은 미끼 항공기를 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군사기지 대부분은 현존하지 않고, 몇몇 구조물은 농부들이 직접 철거하기 어려워 현장에 남아 결국 주변 자연경관의 일부가 됐습니다. 이 역사는 들뜬 한가운데 서 있는 병커처럼 대부분 잊혔죠.

Q 대만 마오리에 뿌리를 둔 하카족 혈통을 이어받았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카족이든, 대만인이든, 혹은 둘 다이든, 작가님의 공동체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게 있다면요?

저의 하카족 혈통은 예술 활동에 깊이 스며들어 있는데, 특정 주제 의식을 다룰 때 드러나는 게 아니라 방법론 중 하나입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관점, 그리고 일상에 대한 성찰로 작용합니다. 대만은 식민통치와 권위주의적 지배의 역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정권에 의해 억압되거나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져야 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체 모습을 온전히 인지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움’은 사건과 기억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Q 고증을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작품으로 풀어내게 되었습니까?

당시 일본은 대만을 ‘침몰 불가능한 항공모함’으로 만들고자 했고, 단기간에 대만 전역의 항공에 대한 성찰로 작용합니다. 대만은 식민통치와 권위주의적 지배의 역사를 겪으면서 많은 사람들의 기억과 경험이 정권에 의해 억압되거나 지워졌습니다. 그러나 지워져야 했던 과거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비록 전체 모습을 온전히 인지할 수는 없지만, 영향력은 여전히 느껴집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리움’은 사건과 기억의 완전한 모습을 되찾고자 하는 열망을 뜻합니다. 하지만 그 열망은 여전히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수평적이지 않은 관계에서 비롯된 한계는 '갈망'도 비튼다

대만과 한국의 근현대사 궤적은 많이 닮았지만, 사회 정서에서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다. 청일전쟁 이후 반세기에 이르는 식민 통치에도 대만과 일본은 대체적으로 서로 호의적인 관계를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필자도 틈만 나면 이 점에 대해 현지의 지인들에게 묻고는 했다. 여러 견해가 있지만 대만은 '일치시대' 전에도 대만은 중국의 한 섬이었고, 그 전에도 네덜란드(17세기) 등 다양한 외세의 점령을 받은 터라 정체성 다자기에 고심했기에 기본적인 정서가 좀 달랐다는 얘기가 있다. 첫 식민지였던 대만의 모범 사례로 만들기 위해 일본이 애를 썼고, 그 과정에서 대만 경제를 활성화된 부분도 작용했다. 왕야오이의 2채널 영상 작품 '공동 제작(CO-PRODUCTION)'은 20세기 초 대만 영화 산업의 선구자 격인 실존 인물 다카마쓰 도요지로에서 착안해 오랜 지배하에 놓였던 관계의 종속성을 현시대의 에피소드를 통해 다시 들여다본다. 현시대의 일본인 조감독과 대만인 프로듀서가 영화 제작을 위해 다카마쓰의 자취를 밟으며 여정에서 나오는 대화가 흥미롭다.

interview with 왕야오이(Wang Yao-Yi)

1987년생, 대만 타이난 출생, 현재 타이베이 거주



왕야오이(Wang Yao-Yi), '공동 제작(CO-PRODUCTION)'(2025). Two-channel video. Courtesy of the artist, Commissioned by Taipei Biennial 2025. Image courtesy of Taipei Fine Arts Museum.

Q '공동 제작'은 이미 전사된 적이 있고, 이번 에 타이베이 비엔날라에서 의뢰받아 추가 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새롭게 추가된 요소와 그 의미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채널은 2024년 솔랑 문화공원 레지던스에서 제공된 자원을 활용해 제작했습니다. 일본인 조감독과 대만인 프로듀서가 다카마쓰가 걸었던 역사적인 장소를 방문하며 영화를 제작하려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채널은 이번 비엔날라의 의뢰로 제작한 두 번째 채널은 선불교의 공간(kōan, 公案)인 '벽돌을 닦아 거울을 만드는 것'(磨磚成鏡)에서 영감을 얻었는데, 이는 은유적으로 헛된 행위로 이해되며, 등장인물들이 결국 완성하지 못하는 첫 번째 채널의 영화 프로젝트를 가리킵니다. 두 채널은 각각의 독립성을 훼손하지 않고 별도로 시청할 수 있지만 함께 보면 상호 텍스트적인 대화를 형성하죠.

Q 대만에서 영화 제작에 고군분투하는 가상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탕에는 대만에서 최초로 촬영한 다카마쓰 도요지로의 실화를 전제로 하는데, 이 영화는 소실되었지만 일제강점기의 대만 발전상을 묘사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는 대만 문화계에서 널리 알려진 인물인가요? 어떻게 접하게 됐는지요?
그가 만든 〈대만 실상영화(Taiwan Jikkō Shōkai)〉는 더 이상 볼 수는 없지만, 그가 남긴 기록물이 많습니다. 대만 일제강점기 당시 가장 널리 배포됐던 신문에는 다카마쓰가 촬영했던 장소와 촬영 기법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어, 내용도 어느 정도 상상해볼 수 있습니다. 그는 원래 노동운동가였지만, 일본 식민 정부의 요청으로 대만에 와서

영화를 제작하고 상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 상업적으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고, 대만에서 여러 영화관을 소유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러한 모순적인 모습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한때 좌파 청년이었던 그가 식민 정부를 위해 일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러한 호기심이 작품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Q 영상 작품 속 주인공은 대만이 더 이상 식민지도 아니고 계엄령하에도 있지 않은 시대의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대만 영화 산업은 세계화와 자본 전쟁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작품 속 '공동 제작'이라는 현실이 대만 사람들이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기 어려웠던 식민지 시대의 잔재를 반영하는 걸까요? 일본인 조감독과 다카마쓰는 서로 포개지는 캐릭터인가요?
대만 영화 산업의 난관에는 여러 복잡한 요인이 얹혀 있지만, 중요한 문제 중 하나는 지역 문화가 지배적인 외국 문화에 종속되는 경향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이러한 외국 문화가 상징하는 근대화를 '동경', '갈망'하는 상태에 갇혀 있음을 시사합니다. 제 작품에서 일본인 조감독은 대만인 프로듀서에게 영화 제작 기술을 가르치며, 둘 사이에 짧은 멘토 관계가 형성됩니다. 다카마쓰는 멘토인 이토 히로부미의 소개로 대만에 와서 영화를 촬영했고, 대만인 가이드의 안내로 섬 곳곳을 여행하며 촬영했습니다. 저는 등장인물들을 통해 다카마쓰 도요지로를 암시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스승과 제자 관계는 일본과 대만의 식민 관계를 반영합니다.

interview with 아침 김조은(Joeun Kim Aatchim)

1989년생, 한국 출생, 미국 뉴욕 거주

#아주 작은 속삭임이 '울림'이 되는 순간들

이번 비엔날레에는 '변역된 도자기로 명성 높은 이수경, '한지·먹·불'의 회화로 유명한 김민정, 송은미술대상 대상 수상자 탁영준 등의 한국 출신 작가들이 참여했다. 그리고 아침 김조은 작가가 커미션 작업인 실크 드로잉 시리즈 '침 Crush'로 2층 전시장을 인상적으로 수놓으며 그 대열에 합류했다. 이름 '조은'의 한자 뜻인 '아침의 은혜'를 담은 작가명을 쓰는 그녀는 지난해 여름 글래스트론 갤러리 서울에서 개인전 〈최소침습(Minimally Invasive)〉을 선보였는데, '완판과 더불어 미술계의 호응을 얻었다. 〈최소침습〉 프로젝트는 한자 뜻에 따라 '최소小/침범/습襲' 4장으로 나뉘는데, 작년 서울 전시에서는 '작음', '적음' 등에 주목한 '소'와 '만' 펼쳤고, 비엔날레 감독들은 이 전시의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LA 전시를 보고 작가의 뉴욕 스튜디오를 직접 방문했다고 한다. 그리고 반년쯤 뒤 비엔날레 초청으로 이어졌다.

Q 작가님의 〈최소침습〉 프로젝트에서 가장 아름다운 첩터인 '소小'를 서울 전시에서 전개한 데 이어 이번에는 '침 Crush'라는 작업을 선보였는데, 어떤 결의 작업인가요? 커미션 작업인데 예술감독들과 어떤 교감이 있었나요. 제가 삶의 가장 낮은 곳에 있던, 침잠하던 시기에 그런 작품들입니다. 여기에서 '침 Crush'는 큰 충돌이라기보다 바깥으로 나아갈 힘이 사라지고 안쪽으로 계속 파고드는 상태에 더 가까웠던 것 같아요. 부서지는 순간이 아니라, 부서지지 않기 위해 스스로를 더 낮추고 더 작게 접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침(侵)'은 그렇게 이어진, 아주 작은 속삭임 같은 움직임에 대한 기록입니다. 원래 비교적 대형 설치 작업을 구상하기도 했는데, 건강상의 이유로 스튜디오에 오래 머무르며 작업하는 방식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게 되었어요. 그 결과, 제 삶이 저를 이끄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이어갈 수 있는 작은 사이즈의 작업을 제작하게 됐고, 이를 하나의 군중처럼 세우는 설치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작업은 저의 일상적인 공간에서 저와 함께 조용히 시간을 보내고, 같이 자고, 서로를 관찰해보면서 완성한 그림들입니다. 완성된 결과라기보다 가장 처음 몸집에서 멈춘 초안이에요. 완성보다 연약한 속삭임이라든가 이어가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고, 그 점이 이번 전시의 주제와도 잘 맞닿아 있다고 느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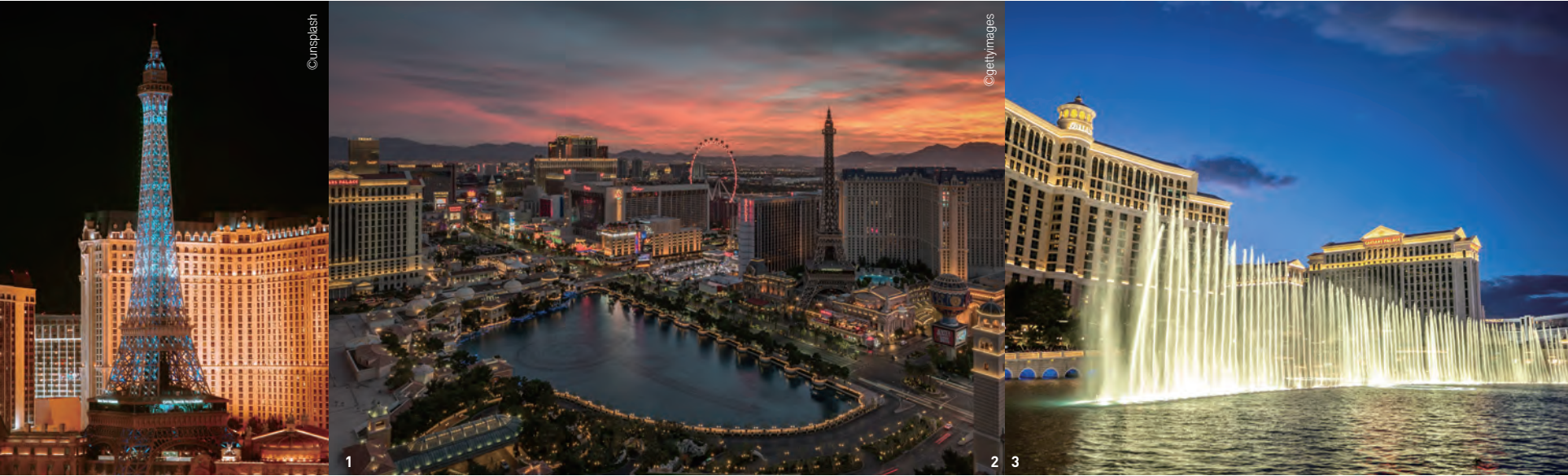
Q 섬세한 외과수술 기법을 가리키는 '최소침습'이라는 제목에 담긴 의미가 작가님에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끼쳤는지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고국을 떠나 장기간 체류하면서 타지에서 겪은, 다소 무섭고 생소하지만, 의외로 위로가 되었던 경험에서 비롯된 것일지요? 흥미롭게도 '최소침습'이라는 말 자체가 제 개인적인 기억에서 비롯된 단어입니다. 실제로 최소침습적 수술을 받고 회복하던 시기에, 조용히 음미하게 된 말이었어요. 몸에 남는 상처는 최소화하면서도, 삶에는 분명한 변화를 남기는 방식이라는 점이 오



아침 김조은, 'Minimally Invasive: Chapter 침 Crush'(2025). Courtesy of the artist and François Ghebaly, Los Angeles / New York. Image courtesy of Taipei Fine Arts Museum.

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가장 작은 몸집으로 가장 크고 오래 남는 영향, 가장 짧은 만남이 가장 긴 기억이 되는 것. 저는 그것이 제가 욕심내는 가장 아름다운 삶의 형태라고 느꼈습니다. 15년간 해외에서 생활하며 저는 늘 타인의 삶과 공간을 조심스럽게 통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간들은 때로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동시에 제 삶의 감각을 더 섬세하게 만들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 작업 또한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 크게 뒤흔들기보다 조용히 기억에 남는 방식이길 바랐던 것 같습니다. '최소침습'은 작업의 방법이자, 15년 동안 타지에서 살아오며 제가 몸으로 익혀온 하나의 태도에 가깝습니다.

Q 스스로의 작업 방식을 '투명주의(transparency)'라고 규정했습니다. 실क्र는 투명감 있는 재료에 드로잉을 하는 자신만의 방식을 찾게 된 계기,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스스로의 상처를 보듬는 '치유'로 연결할 수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같은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답한 적이 있습니다. "투명주의는 제 시간과 경험이 층층이 쌓여 형성된 하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기억은 불러올 때마다 아주 얇은 새 종이에 복사되듯 한 겹씩 더해지고, 그렇게 조금씩 달라진 기억 위에 또 다른 기억이 얹혀 부활한다고 생각합니다. 겹, 즉 'layer'는 제 작업에서 시간을 뜻합니다. 저는 한 장을 완성하기보다,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만들어진 초안을 겹쳐 보며 짝을 찾습니다. 그렇게 작업은 하나의 연속적인 초안으로 납니다." 이 방식은 저에게 상처를 즉각적으로 통합하지 않고 사랑하는 대상을 보듯 시간을 두고 친밀해지는 법, 그리고 기다리는 태도를 가르쳐주었습니다. 실크라는 투명한 매체 위에 드로잉을 이어가는 일은, 그런 태도를 몸으로 연습하는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실크 드로잉은 결과라기보다 제가 스스로를 보듬어온 시간의 흔적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글 고정연(타이베이 현지 취재)



라스베이거스 문화 예술 산책

‘네온의 도시’가 창조하는 세계

원초적인 감각의 자극, 그 너머에서 열망하고 발견하는 순수함의 가치. 온 세상을 감각적으로 비추듯 불이 환히 켜지고 꺼지기를 반복하는 라스베이거스의 네온사인은 0의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말한다. 평범한 일상을 이루는 작은 요소부터 예술가의 창조적 에너지까지 아우르는 사막의 도시에서.



네온사인이 앞다투어 밝히는 야경, 그리고 잠들지 않는 화려한 밤의 도시로 각인되어 있는 미국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 갓난아기 시절 할머니 품에 안겨 그랜드캐니언을 바라보는 가족사진이 남아 있는 덕택에 라스베이거스의 자연 절경에 대한 기록을 갖고는 있지만, 사실 이 사막 도시에 대한 이러한 호감을 되새길 만한 선명한 계기는 없었다. 그러다가 지난해 가을 개최된 럭셔리 미디어 콘퍼런스 'IMM LUX 2025' 참석차 나흘간의 일정으로 라스베이거스를 방문하게 되었다. 올해에도 세계 각국에서 럭셔리 트래블 미디어 에디터, 콘텐츠 크리에이터, 호텔, 리조트, 관광청, 에이전시, 럭셔리 트렌드 전문가, 그리고 인플루언서 등 럭셔리 여행 산업의 핵심 플레이어가 모여 럭셔리 여행 산업의 현주소와 다음 행보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며 트렌드 분석과 더불어 다양한 인사이트 공유의 장을 마련했다. 마침 필자의 경우 럭셔리 여행 콘텐츠가 웰니스 문화의 표피에만 반복적으로 머무르는 것을 보고 답답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그 이상 어떤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지 궁금했다. 그리고 이번 IMM LUX 2025 콘퍼런스를 통해 얻은 인사이트는 감동의 일부를 털어주었다. 점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순간의 답글한 휴가, 장기 체류를 넘어, 이제는 거주와 삶으로 이어지는 관점으로 여행을 대한다는 게 그러한 통찰의 핵심이다. 즉 여행지에서의 시간을 내 삶의 일부이자, 제2의 인생을 설계하는 관점으로도 접근하고 있다는 얘기다. 그리고 라스베이거스야말로 여행지와 일상의 경계가 가장 모호하거나 역으로 가장 뚜렷한 곳일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1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을 대표하는 상징적 명소로 꼽히는 파리 라스베이거스 리조트 & 카지노의 에펠탑. 2 해 질 녘의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3 저녁 7시 30분부터 15분 간격으로 이어지는 벨라지오 분수 쇼. 4 거리 곳곳에서 만날 수 있는 네온사인. 5 더 베네치안 리조트 라스베이거스 내·외부 곳곳에는 르네상스풍의 예술적 장식을 적용했다.



해양 생물체를 떠올리게 한다. 첫날 체크인하는 동안의 기다림이 지루하지 않았던 것은 바로 옆에 자리한 '벨라지오 컨서버토리 & 보테니컬 가든(Bellagio Conservatory & Botanical Gardens)' 설치 작업 덕분이기도 하다. 실내와 야외를 아우르는 이 정원은 시즌별로 진행되는 테마에 맞춰 식물, 조명, 오브제 등 다양한 요소를 동원해 꾸미는데, 스케일이 워낙 크다 보니 놀이공원이나 무대예술의 일부를 보는 듯한 기분이 든다. 로비를 지나 호텔 내부로 더 깊이 들어가는 동안 에르메스 매장을 지나고, 중앙부를 가득 메운 슬롯 머신을 마주하게 되는데, 아시아 정신이 소비와 활력적인 색채 속에서 아득해지는 순간을 틔며, 무언가가 내 지갑을 삼켜버릴 것 같다는 상상에 살짝 아찔해 지기도 했다.

자극 속에서 열망하는 순수함

그처럼 '아찔한' 감각이 눈앞에 본격적으로 펼쳐지는 곳이 바로 '오메가 마트(Omega Mart)'다. 팬데믹이 발발한 2020년 문을 연 체험형 복합 문화 공간으로 인기가 많은 '에리어15(Area15)' 내부에 위치한 '핫플'이다. 감각과 본능을 1차원적으로 자극하는 화려함과 그 속에서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묘하게 드러내는 듯한 매력을 지닌 도시 라스베이거스에 어울리는 공간일지 못해 궁금했는데, 역시 참신했다. LED 터널, 홀로그램 아트워크 등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는 듯했다. 오메가 마트는 뉴멕시코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아티스트 컬렉티브 '뮤 울프(Meow Wolf)'가 운영하는 전시장이다. '현실을 해킹하는 슈퍼마켓' 콘셉트 아래 현실의 슈퍼마켓과 가상의 초국적 기업 'Dramcorp'가 통제하는 사이버 세계를 B급 감성의 무드를 빌려 '동시에' 보여준다. 마트 내 직원 전용 출입문을 열면 사공간이 바뀌는, 새로운 차원의 공간으로 연결된다. 뮤 울프는 전시를 기획하듯 지역 예술가와와의 협업으로 슈퍼마켓을 꾸미는데, 이들이 오메가 마트의 진열대에 올라가는 패러디 상품, 허구 상품 등의 아이템을 하나씩 보고 있으면 허위, 과장, 허세적인 문구로 자극하고 동시에 자극받는 소비 욕구가 떠오른다. 그 때문에 실소가 나올까 동시에 정곡이 찔린 듯한 기분이 든다. 또 데이터 자본주의, 소비 사회, 정체성 등 이제는 사회와 일상에 상당 부분 동화되어가고 있는 이슈를 예민하게 바라볼 때임을 상기시킨다. 오메가 마트의 B급 감성을 체험하고 나니, 이제는 비주류인 듯 주류 대열에 들어선 유튜브 창작맨, 웹툰 작가 기안 84 등의 캐릭터와 콘텐츠의 인기가 모두 공통된 맥락으로 여겨진다. 창작맨 유튜브 콘텐츠를 예로 들면 지극히 일상적이고 너무 시시콜콜해서 공중과 방송에서 다루지 않을 법한 것을 다룬다. 이를테면 맥도날드 피시 버거를 먹을 때 나는 타르타르 소스와 튀긴 생선 패티의 조합 특유의 냄새에 주목해 한 편의 방송 콘텐츠를 똑딱 만들어내는 식이다. 어쩌면 우리는 사회에서 점점 없는 무언가보다 민낯을 드러내길 바라고, 그러한 것들에

노출되길 원하는 것은 아닐까? 라스베이거스에서 피어나는 '진짜' 혹은 '순수함'에 대한 열망은 다음 날 네온 뮤지엄에 수북이 쌓여 있는 네온 더미 속에서 예상치 않게 구체화되었다.

불 꺼진 네온사인 더미 속에서

조개형 실루엣의 파사드로 유명한 네온 뮤지엄의 방문자 센터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에 있던 '라 콘차(La Concha)' 호텔의 로비를 해체해 옮겨놓은 공간이다. 건축가 폴 리버어 윌리엄스(Paul Revere Williams)가 설계한 미드센추리 모던의 '구기(Googie)' 스타일을 대표하는, 우주 시대의 미래 지향적인 포물선 아치가 인상적인 건축물로, 네온 뮤지엄의 상징처럼 여겨진다. 해가 저무는 저녁 6시 30분경, 방문자 센터의 외부 조명이 점등되면서 코발트빛 하늘 아래에서 이 건물이 지닌 아름다움이 한층 살아났다. 네온 뮤지엄에서 특히 인상 깊게 다가온 건 야외 전시장에 위치한 '보네야드(boneyard)'였다. 라스베이거스의 전성기를 수놓던 네온사인들의 '안식처'와도 같은 아카이빙 공

1 더 베네시안 리조트 내에 위치한 팔라초 호텔, 2 대형 카지노 시설과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갖춘 플래닛 할리우드 리조트 & 카지노를 중심으로 둔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뷰, 3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의 중북부에 위치한 윈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일대의 호텔 중에서도 세련된 인테리어를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5, 6, 7 오메가 마트는 스트레스가 절정인 이들에게 추천한다. 마트에서 나와 어떤 공간을 선택하든 현실로부터 완벽하게 차단된 듯한 기분이 든다.



사막의 여백에서 읊트는 창조의 에너지

라스베이거스 외곽을 탐색한 마지막 날의 일정은 사막의 여백에서 나오는 창조의 힘을 곱씹어보게 하는 짧지만 소중한 기회였다. 지난 2021년 타계한 여성 작가 리타 디닌 애비(Rita Deanin Abbey, 1930~2021)에게 헌정된 미술관을 만났기 때문이다. 2022년 여름, 작가의 예전 스튜디오가 있던 자리에 문을 연 '리타 디닌 애비 아트 뮤지엄(Rita Deanin Abbey Art Museum)'은 황무지에서 솟아오르는 가능성이야말로 라스베이거스만의 매력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 뉴저지 출신이지만 사막의 빛과 색채에 매혹되어 1965년 라스베이거스로 이주한 리타 디닌 애비는 마케팅과는 먼 삶을 살아 생전에 크게 조명받지 못했다. 하지만 네바다주에 있는 대학교 UNLV의 초창기 교수이자 다매체 작가로서 교육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면서도 왕성한 창작 활동을 펼쳤다. 그녀의 조형 언어는 사막의 빛과 지질구조, 광물의 색감 등 자연환경적 요소에서 출발한다. 미술관 뒤편에 자리한 야외 정원은 '빛은 부수적인 것이 아니라 작품의 일부다(Light is not an accessory but an element)'라는 그녀의 작업 철학을 고스란히 실현하는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강철 조각 작품과 자연이 교감하는 장면을 실시간으로 경험할 수 있다. 사막 풍경이 펼쳐지는 가운데, 붉은 자갈길 위로 3~4점의 대형 강철 조각 작품이 적당한 거리를 두고 설치되어 빛과 바람을 있는 그대로 맞이한다. 조각 작품 외에도 캔버스와 금속, 유리, 스테인드글라스, 이후 컴퓨터 아트 페인팅까지 시도할 만큼 거침없이 실험적이었던 작가의 작업 방식은 이 도시의 역동적이고 진취적인 기운을 떠올리게 한다. 인공의 빛이 수놓은 도시에서 자연광의 아름다움을 일찍이 알아보고 발현시킨 예술가 리타 디닌 애비. 그녀의 작품은 여백이 가득한 사막의 땅, 0의 상태에서 꿈을 꾸고, 시작하고, 더 나은 현실을 창조할 수 있게끔 이끌어주는 에너지를 유유히 발산하고 있었다.

글 김민형(객원 에디터, 라스베이거스 현지 취재)

1, 2 네온 뮤지엄 외부 공간에서는 스트립 황금기를 대표할 만한 'Stardust' 같은 1950~60년대 네온사인, 그리고 절정기 이후 1970~80년대 네온사인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네온 디자인을 보여준다. 3, 4, 5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중심부에서 살짝 떨어진, 주거 지역이 밀집한 북서쪽에 고요히 위치한 리타 디닌 애비 뮤지엄.

간인 보네야드는 전시용으로 오픈한 야외 수장고라고도 볼 수 있다. 제 몫을 다한 불 꺼진 네온사인들이 불규칙하고 무질서하게 포개져 있는 광경은 금방이라도 허무한 감정이 치솟게 만들 파편과 잔해, 폐허의 광경을 떠올리게 한다. 문득 라스베이거스의 화장을 지운 민낯이 있다면 보네야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혼을 속 빼놓을 만큼 무언가에 압도당하기 바빴던 이 도시에서 유일하게 반전 매력 같은 면모에 대해 알려준 장소였다. 한편 그 옆으로 즐비하게 늘어선 유명 네온사인들은 1950~70년대 라스베이거스 스트립(Las Vegas Strip)의 형성과 역사를 축약해놓은 듯했다. 라스베이거스 스트립은 도시의 중심을 관통하는 약 6.8km에 걸친 대로를 뜻한다. 구체적으로 남쪽의 만달레이 베이(Mandalay Bay)에서 북쪽의 스트랫 호텔, 카지노 & 타워(The STRAT Hotel, Casino & Tower)까지 이어지며, 그 사이에 세계적인 리조트, 카지노, 미술관 레스토랑, 공연장이 줄지어 펼쳐진다. 흥미로운 점은 행정구역상 대부분은 '라스베이거스시'가 아닌 클라크 카운티의 패러다이스와 윈체스터에 속한다는 것. 행정구역상으로는 무관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관광의 중심축이자 도시의 얼굴로 통하고, 밤이 되면 곳곳의 호텔 실루엣과 네온으로 스카이라인을 물들이며 무대처럼 작동하는 셈이다. 행정적 제약에서의 자유를 추구하면서도 라스베이거스의 일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번 일정을 끝내고 단 하루만이라도 더 머물고 싶어 했던 필자를 포함해 라스베이거스를 오가는 수많은 관광객이라면 이 마음에 공감하지 않을까.





멜버른(Melbourne) 리포트 진정으로 ‘잘 먹는’ 생태계로 향하는 푸드 업사이클링

2020년, 호주 멜버른의 페더레이션 광장 한복판에 푸른 식물로 뒤덮인 3층짜리 집이 등장했다. 관광객들의 셀카 명소바로 옆, 쓰레기 배출을 '0'에 가깝게 줄이자는 '제로 웨이스트(zero waste)' 운동가인 네덜란드 출신의 요스트 바커르(Joost Bakker)가 세운 거대한 온실이였다. 지붕 위 35톤의 흙밭에서는 2백50여 종의 생명체가 공존했고, 음식을 찌꺼기는 가스과 비료로 순환했다. 자연주의 셰프 부부는 6개월 동안 이곳에 머물며 직접 키운 재료로 손님들 맞았다. 마치 대도시에서도 자급자족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21세기판 <월든>처럼. 멜버른은 당시 팬데믹으로 무려 2백62일의 긴 봉쇄를 겪었다. 흠잡을 데 없이 보이던 식량 공급망이 흔들렸고, 슈퍼마켓 진열대가 텅 비기도 했다. 사실 멜버른은 그 전부터 먹거리를 도시계획의 일부로 다뤄온 호주 유일의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로컬 푸드 시스템의 취약한 민낯을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위기는 변화를 불러왔다. 삶을 지탱하는 '기본'인 먹거리 구조를 다시 세우려는 움직임이 도시 곳곳에서 싹텄다. 땅에서 시작해 식탁으로 이어지는 건강한 흐름을 회복하고자, 농장과 시장, 주방과 커뮤니티에서 각기 다른 사람들이 조용히 길을 닦기 시작했다. 지구 여행자가 다시 지구와 사랑에 빠질 수 있도록.

'0'으로 수렴하는 주방

멜버른의 명물로 도심에 위치한 퀸 빅토리아 마켓은 주말이면 아침 일찍부터 북새통을 이룬다. 1백40년 넘게 '멜버른의 부엌'으로 불려온 이 유서 깊은 시장에서 동네 주인과 세계 각지의 관광객이 뒤섞여 제철 과일을 고르고 기념품을 구경한다. 조금 더 주의 깊게 둘러보면 시장 한편의 목적 구역(Purpose Precinct)이 보인다. 사람과 지구를 위한 실천을 이어가는 사회적 기업이 모인 곳이다. 취약 청년에게 직업훈련과 고용 기회를 제공하는 카페, 윤리적으로 생산한 로컬 제품만 선보이는 리테일 숍 등이 자리한다. 그중에서도 눈길을 끄는 곳은 남는 농산물을 버리는 대신 새로운 식재료나 식품으로 되살리는 제로 웨이스트 주방, '무빙 피스트 키친(Moving Feast Kitchen)'이다. 이곳은 테스트 키친이자 요리 교실이며, 지속 가능성을 탐구하는 '맛 연구소'이기도 하다. 이른 아침, 주방에는 쿠팡 클래스를 준비하는 셰프의 바쁜 손길이 오간다. 현재 이 공간을 이끄는 토비 퍼터(Tobie Puttock)은 호주에서 널리 알려진 셰프지만, 지금은 제로 웨이스트 요리를 탐구하는 혁신가에 가깝다. 선반 위에는 '수박 껍질 피클', '바나나 케첩' 같은 생소한 제품명이 적힌 단지들이 싹틔 싹틔 솟아 있다. 모두 시장에서 버려질 뻔한 재료가 셰프의 손길을 거쳐 되살아난 결과물이다. 멜버른의 인기 관광지인 이 시장에서는 매년 8백 톤이 넘는 농산물이 버려진다. 반면 같은 지역에는 여전히 불안정한 식량 공급으로 고통을 겪는 주민이 많다. 이 공간을 이끄는 무빙 피스트(movingfeast.net)는 2020년 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네트워크다. 잉여 농산물의 창의적 재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는 호주의 사회적 기업 STREAT의 공동 창립자가 런던 버러 마켓의 가판대에서 시작한 '루비즈 인 더 러블(Rubies in the Rubble)'을 방문하며 얻었다. 버려질 뻔한 과일과 채소를 재가공해 프리미엄 소스, 잼, 피클 등으로 거듭나게 하는 업사이클링 식품 브랜드다. 작은 실천이 식품 폐기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그들은 멜버른에서 또 비슷한 콘셉트를 도입했다.

그렇게 시작된 무빙 피스트 키친의 작업 흐름은 의외로 단순하다. 상인들은 과일 공급되었거나 품질은 좋은 데 외관상 결함으로 판매되지 않은 채소와 과일을 일정 주기로 셰프에게 건넨다. 어떤 날은 딸기 몇 상자, 어떤 날은 지게차에 담긴 300kg의 고구마가 주방 문을 통과한다. 신선도가 빠르게 떨어지는 식재료인 만큼, 셰프는 이를 받아마자 냉동·조리·건조·발효 과정을 거쳐 오래 보관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한다. 이렇게 탄생한 발효 식품, 소스, 간편식은 온·오프라인 팬데리에서 납품되거나 식량 지원이 필요한 가정의 식탁으로 향한다. 지난 2년 동안 무빙 피스트는 지속 가능성을 연구하는 셰프들과 협업하며 계절별 과일 농산물, 처리 방식, 레시피를 담은 방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이는 과일 농산물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제품화하는 데 중요한 길잡이가 된다. 그 결과, 지금까지 약 3톤의 잉여 식재료를 만든 60여 가지 제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상인들 역시 남는 재료를 건넨대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 선순환 구조에 자연스럽게 동참하게 된다. 마켓은 본래 열린 공간으로 상인과 재배자, 요리사가 자연스럽게 만나며 대화를 나누는 곳이다. 이런 환경 덕분에 순환형 식품 아이디어는 곧바로 현실로 이어진다. 예컨대 토비 퍼터는 작년 5월 무빙 피스트에 합류한 뒤



1 무빙 피스트 키친에서 제품을 개발하고 제로 웨이스트 요리 워크숍을 이끄는 셰프 토비 퍼터. Photo by Guy Lavoipierre 2 퀸 빅토리아 마켓 목적 구역의 모습. 지속 가능성을 키워드로 한 로컬 브랜드가 한데 모여 있다. 3 무빙 피스트 키친에서 만든 제품들. 키친 옆 팬데리에서 바로 만날 수 있다. * 이미지 제공 STREAT



1, 2, 3 온실에서 모종을 키우고, 밭에서 제철 작물을 가꿔들이는 농장의 하루. 갓 수확한 채소는 계절마다 '배지 박스로 랜덤 구성해 열어내는 재미'가 있다. 완성된 박스는 그룹 소속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픽업할 수 있다. 4 플린더스 레인에 자리한 레스토랑 헤이즐(Hazel). 7년째 같은 자리에서 팜 두 테이블 철학을 꾸준히 지켜왔다. 5, 6 프로그램 참여자들이 농장 식재료를 음식에 준비하고 나누는 모습. 오는 3월에는 절로 지역으로 새롭게 이주한 여성들이 아프리카 전통 4코스 만찬으로 특별한 행사를 열 예정이다. * 이미지 제공 THE MULBERRY GROUP

그러나 이곳을 특별하게 만드는 건 무엇보다 '먹거리로 사람을 잇는 힘'이다. 네이션 톨먼은 난민 및 비자 취약 여성과 함께 구호 식사를 만들면서 이러한 네트워크의 가능성을 보았고, 이는 이후 핵심 프로그램 'Staying Grounded'로 이어졌다. 프로그램은 6주간 진행되는 유급 과정이다. 참여자들은 상업용 주방에서 필요한 기본기를 익히고, 영어로 간단히 소통하며 음식 설명하는 법을 연습한다. 마지막 주에는 이들이 직접 고향 음식을 준비해 손님들을 초대하는 저녁 식사 자리를 갖는다. 이 파넬레 디너의 수익금은 다음 참여 그룹의 기금으로 이어지며, 프로그램은 선순환을 이어간다. 이와 별개로 주민 참여 프로그램도 꾸준히 다. 매주 화요일 농장 문이 열리면 주민들이 자원봉사로 밭을 돌보고 수확을 돕는다.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돼 있어, 커뮤니티 농장 역할을 차근차근 이어나가고 있다. 이제 커먼 그라운드즈는 멜버리 그룹의 뿌리가 되었다. 도심의 팜 두 테이블 레스토랑 헤이즐(Hazel)을 비롯한 그룹의 레스토랑은 농장의 리듬에 따라 움직이고, 메뉴는 수확의 흐름에 따라 결정된다. 새로 합류한 직원들은 먼저 농장을 체험한 뒤 주방으로 들어간다. 그룹의 수익 일부는 농장 운영과 프로그램 개발에 재투자된다. 톨먼은 "작업에서 돌봄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레스토랑과 생산자 간의 긴밀하고 장기적인 관계가 그 핵심이죠"라고 말한다. 토양, 사람, 커뮤니티를 하나로 묶는 이 구조는 거창한 전략이 아니다. 돌봄에 대한 약속, 경청하는 태도, 그리고 땅과 사람에게 필요한 것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실천일 뿐이다. 우리는 어느새 매일 소비하는 것들의 출발점에서 가장 멀어진 세대가 되었다. 먹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자라는지에 대한 감각도 희미해졌다. 우리가 먹는 것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되면, 무엇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을 까. 멜버른은 그 질문에 작게나마 답하고 있는 도시다. '커피의 도시'로 알려진 이곳에서 태어난 가장 원초적인 상상은 여전히 순환의 고리를 따라 조용히 작동한다. 그래서일까, <월든>의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외침은 시간을 넘어 멜버른의 식탁 위에 다시 살아나는 듯하다. "단순하게, 단순히, 단순하게(Simplify, simplify, simplify)." 글 강주희(객원 에디터)



'구조된' 과일로 특색 있는 제품을 만들어냈다. 캔디 멜론으로는 핫소스를, 옹과로는 디저트 소스를 만드는 식이다. 더 나아가 그는 '지속 가능한 식사 클럽' 같은 워크숍을 열어 제로 웨이스트 요리의 가능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있다. 그는 "우리 사회는 식재료의 80%만 쓰고 20%를 버리는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라고 말하며, 최근 상인들에게 골칫덩이였던 양배추 겉잎으로 초밥용 김을 만드는 실험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성공한다면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해조류 소비 패턴에 작은 균열을 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버려지는 재료를 활용하면 오히려 더 맛있는 음식이 나올 때가 많아요. 이런 경험이 하나둘 쌓이다 보면 지속 가능성은 어려운 과제가 아니라 그저 좋은 요리 방식으로 느껴지죠." 토비 퍼터의 말처럼 완벽한 해결책이 나오길 기다리기보다, 지금 실천 가능한 작은 일이 결국 시스템을 움직인다. 무빙 피스트 팀은 앞으로는 상인들과 협력해 잉여 재료를 구조하고 누구나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식료품을 개발할 계획이다. 지금도 '못난이' 식재료는 전보다 새로운 형태를 빚어가며, 버려지는 양은 0을 향해 가고 있다.

'흙'에서 시작하는 식탁

멜버른 도심에서 자동차로 1시간쯤 달리면 풍경이 확 바뀐다.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낮은 구릉과 목초지가 펼쳐진다. 절릉(Geelong) 외곽, 벨라린 반도 어귀에 자리한 '커먼 그라운드 프로젝트(Common Ground Project)'는 도시 끝자락에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낸다. 이 농장은 멜버른의 대표적인 호스피탈리티 기업인 멀베리 그룹(The Mulberry Group)이 운영한다. 그룹 창립자 네이션 톨먼(Nathan Toleman)은 카페, 레스토랑, 호텔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뒀지만, 늘 무언가 허전함을 느꼈다. '식재료를 길러주는 땅과 음식에 생명을 불어넣는 사람들'을 가장 큰 자산으로 여기던 그는, 이 소중한 두 가지 가치를 동시에 지킬 방법을 고민했다. 때마침 부탄 여행에서 우연히 접한 '임팩트 비즈니스'가 사고의 전환점이자 활로가 됐다. 이윤뿐만 아니라 사회적, 환경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모델은 그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었고, 2019년 작은 키친 가든에서 시작한 농장은 자리를 잡아가았다.

커먼 그라운드는 재생 농업(regenerative agriculture)을 기반으로 한다. 황폐해진 토양 생태계를 복원하고 생물 다양성을 회복시키는 농업 방식이자 실천 체계로 기후 위기의 효과적 대응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 티스푼의 건강한 흙에 최대 10억 개의 박테리아가 산다는 이야기는, 마생물이 식물을 키우고, 그것이 식량이 되어 우리 식탁에 오른다는 사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농장은 밭을 과도하게 갈지 않고, 화학비료 대신 천연 퇴비와 암석 가루를 사용한다. 작물 사이에는 덮개 작물을 심어 토양을 보호하고, 닭을 방목해 잡초를 제거한다. 토양은 이 과정을 통해 스스로 회복해진다. 커먼 그라운드는 이러한 원칙을 꾸준히 실천하며 재생 농업의 철학을 묵묵히 이어나가고 있다. 팬데믹 기간 동안 농장은 의외의 성장기를 맞았다. 레스토랑이 문을 닫은 사이 농장 팀은 흙을 돌보고 온실을 세우며 토양 재생에 집중했다. 그 시기가 농장의 토대를 더욱 단단하게 했고, 현재는 80개의 생산 베드를 운영하고 있다. 직판장과 정기 마켓, 시내 배송은 농장의 신선한 수확물을 도시 일상으로 흘러보내는 작은 통로가 된다. 자체 생산물에 더해 주변 농장의 윤리적 농산물까지 아우르며, 지역 생산자들이 버텨낼 수 있는 생태계를 함께 지탱하고 있다.



미식으로 경험하는 브랜드의 정수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말해달라. 그러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해주겠다.’ 18세기를 주름잡았던 프랑스의 법관이자 미식이 브리아-사바랭의 오랜 경구처럼, 음식은 한 사람의 취향과 삶의 방식을 총체적으로 드러내는 요소다. 이 점을 민감하게 포착한 럭셔리 브랜드들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과 철학을 ‘경험재’로 접하게 하는 플랫폼이자 유기적인 사업 확장을 꾀하는 방식 중 하나로 미식 공간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 서울에서 대중에 공개됨과 동시에 화제를 모은 루이 비통의 새로운 미식 공간부터 다양한 해외 사례까지, 오감으로 브랜드를 경험하게 만드는 라이프스타일 전략을 살펴본다.

스토랑을 연 전력이 있고, 지난 9월에는 브랜드 차원에서 아예 해당 공간을 ‘르 카페 루이 비통(Le Café Louis Vuitton)’으로 탈바꿈시켜 상설 운영을 시작했다. 이처럼 국내에서도 미각 마케팅에 꾸준히 공을 들여온 루이 비통이 새롭게 오픈한 ‘르 카페 루이 비통’,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옛 루이 비통(Le Chocolat Maxime Frédéric at Louis Vuitton)’, ‘제이피 옛 루이 비통(JP at Louis Vuitton)’은 미식가들 사이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브랜드의 정체성을 담은 하이엔드 미식 공간

LV 더 플레이스 서울, 신세계 더 리저브 4층에 위치한 르 카페 루이 비통과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옛 루이 비통은 2025년 세계 최고의 패이스트리 셰프로 선정된 막심 프레데릭이 이끈다. 홈 공간 안쪽으로 프라이빗하게 자리 잡은 르 카페 루이 비통에서는 프랑스의 전통에 한국적 감각을 더한 다채로운 디저트와 음료 메뉴를 즐길 수 있다. 특히 두 종류의 타타인 세트 메뉴는 여섯 가지 미니 앙트레메와 음료 등으로 구성된 르 카페 루이 비통이 추구하는 미식의 결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홈 공간 맞은편에 개방감 있게 조성된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옛 루이 비통에는 밀크·다크 초콜릿 바, 코티드 헤이즐넛, 프랄린·미니 비비엔 캔디 박스, 초콜릿 스프레드 풋 등 세심한 디테일이 깃든 제품이 준비됐다. 6층에 자리 잡은 제이피 옛 루이 비통은 뉴욕의 미술관 2 스타 레스토랑 아토믹스(Atomix)의 박정현 셰프가 선보이는 첫 한국 레스토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화제를 모았다. 1월 정식 오픈 예정인 이곳은 아직 베일에 싸여 있지만, 그동안 창의적인 메뉴를 선보인 박정현 셰프가 자신의 요리 세계관을 가감 없이 펼쳐 보일 새 무대라는 점에서 모두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세계적인 셰프를 전면에 내세운 미식 공간을 선보이는 전략은 구찌의 미식 공간에서도 엿볼 수 있다. 2022년 구찌는 세계적인 스타 셰프 마시모 보투라의 요리 철학이 깃든 ‘구찌 오스테리아 다 마시모 보투라 서울(Gucci Osteria da Massimo Bottura Seoul, 이하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을 이태원의 구찌 가옥 6층에 열었다. 마시모 보투라와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의 전형규 총괄 셰프가 함께 한 국과 이탈리아 문화가 어우러진 메뉴를 개발해 선보이며 큰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9월,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창당 플래그십 스토어 5층으로 확장 이전하며 더욱 정제된 모습으로 거듭났다. 매장의 수직 공원 콘셉트를 반영해 도심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은 이태원에서 보여준 모습보다 한층 더 자연적이며서 탁 트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기존의 시그니처 메뉴와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신메뉴도 더해 보다 다채로운 미식 경험을 추구한다.



1 막심 프레데릭 패이스트리 셰프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는 제품을 선보이는 르 쇼콜라 막심 프레데릭 옛 루이 비통. 2 르 카페 루이 비통에서는 프랑스의 전통에 한국적 감각을 더한 다양한 디저트와 음료를 즐길 수 있다. 3 뉴욕의 미술관 2 스타 레스토랑 아토믹스의 박정현 셰프가 선보이는 한국 첫 레스토랑이기도 한 제이피 옛 루이 비통. 4 르 카페 루이 비통에서 즐길 수 있는 타타인 세트 메뉴는 루이 비통이 추구하는 미식의 결을 섬세하게 보여준다.



지난 11월 건물 6개 층을 통째로 채운 ‘LV 더 플레이스 서울, 신세계 더 리저브’ 내에 선보인 ‘루이 비통 비저너리 저니 서울(Louis Vuitton Visionary Journeys Seoul)’은 총체적인 라이프스타일 공간을 지향하는 럭셔리 브랜드의 오라를 각 잡고 드러낸다. 패션, 뷰티, 주얼리, 홈 컬렉션 등을 아우르는 매장은 물론 문화 체험형 공간, 그리고 서로 다른 세 가지 유형의 범상치 않은 미식 공간도 함께 들어 있다. 루이 비통의 전통과 현대성을 한 공간에서 유기적으로 엮어내는 ‘비저너리 저니’ 프로젝트는 글로벌 도시마다 각각 다르게 풀어내는데, 서울에서는 역대급 공간 규모도 놀랍지만 ‘맛의 체험’에 중점을 둔 구성도 눈에 띈다. 루이 비통이 한국에서 미식 전략을 들고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이미 2022년부터 청담동의 루이 비통 메종 서울 4층에서 파에르 상 부아에, 알랭 파사르, 제러미 잔, 조희숙, 조은희, 박성배, 강민규, 이은지 등 유수의 국내의 셰프들과 협업해 팝업 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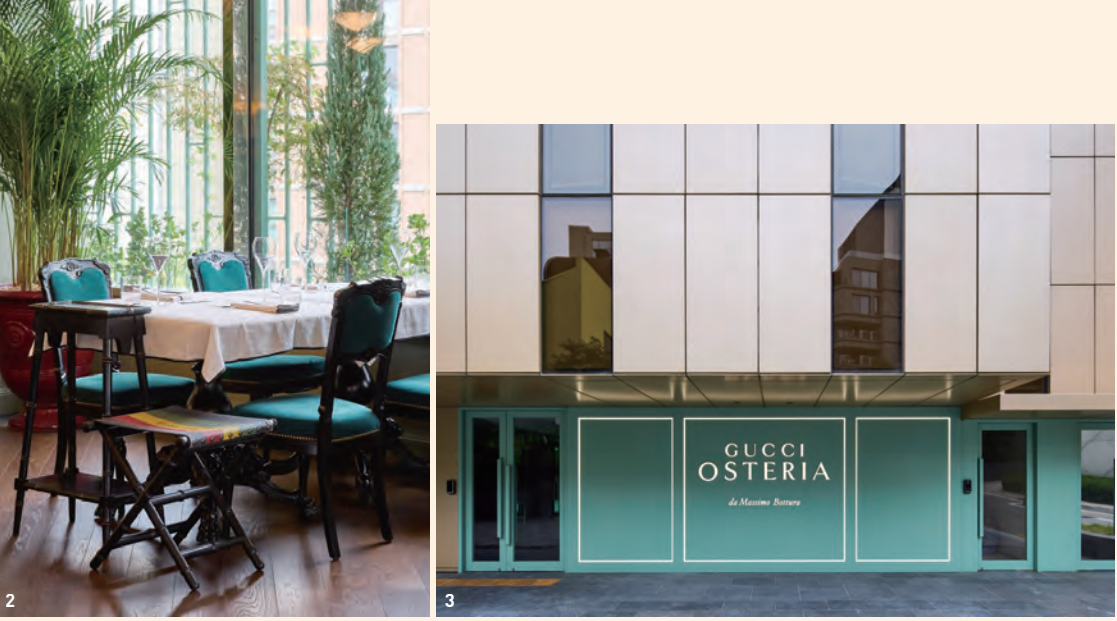


접근성과 친근함을 강조한 브랜드 카페

한편 코치와 랄프 로렌은 스타 셰프들과 손잡고 브랜드의 세계관을 담은 하이엔드 미식 공간을 서울에 조성한 루이 비통, 구찌와 조금은 결이 다른 노선을 선택했다. 매장 안, 또는 매장과 연결되는 공간에 카페를 꾸려 접근성을 높이고 친근함을 강조한 것.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이 보급자리를 옮긴 작년 9월, 코치는 롯데프리미엄아울렛 동부산점에 국내 최초 ‘코치 커피숍(Coach Coffee Shop)’을 오픈했다. 뉴욕 택시 조형물을 찬장에 거꾸로 매달아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치 커피숍은 코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스튜어트 베버스가 직접 디자인했다. 다양한 메뉴는 물론 브랜드의 마스코트 캐릭터 ‘릴 미스 조(Lil Miss Jo)’가 새겨진 머그컵, 토트백, 티셔츠 등의 굿즈를 마련해 고객에게 친근하게 다가간다. 이보다 1년 전인 2024년 가을에 폴로 랄프 로렌 서울 가로수길 스토어 1층에 오픈한 ‘랄프스 커피(Ralph’s Coffee)’도 마찬가지다. 랄프스 커피 스페셜 블렌드 원두로 내린 커피 메뉴를 비롯해 다양한 음료, 디저트와 브랜드의 클래식한 감성을 담은 시그니처 토트백, 그래픽 티셔츠, 모자, 머그컵 등을 선보이고 있다. 랄프스 커피는 2025년 초 تهران 서울 지하 1층에서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2026년에는 서울 코엑스 파르나스몰에 2호점을 열어 입지를 넓혀갈 예정이다.



6, 7 중국 베이징에서 선보인 미 상 프라다 룽 자이에서는 건물이 지은 헤리티지와 왕가위 감독의 미감이 깃든 공간에서 이탈리아와 중국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메뉴를 맛볼 수 있다. 8 2024년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패션 거리에 오픈한 아르마니/카페, 1998년부터 다양한 형태의 미식 공간을 전 세계에 전개해온 아르마니 그룹의 행보는 여전히 활발하다.



1 2024년 폴로 랄프 로렌 서울 가로수길 스토어 1층에 오픈한 랄프스 커피는 2026년 서울 코엑스 파르나스몰에 2호점을 오픈할 예정이다. 2, 3 창당 플래그십 스토어 5층으로 확장 이전한 구찌 오스테리아 서울은 한층 더 자연적인 분위기의 인테리어와 새롭게 추가된 메뉴로 사람들의 발길을 끈다. 4 천정에 달린 뉴욕 택시 조형물이 유쾌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코치 커피숍. 5 코치 커피숍에서는 브랜드의 마스코트 캐릭터 릴 미스 조가 새겨진 다양한 굿즈도 판매한다.

다채로운 전략을 구사하는 글로벌 다이닝 & 카페

F&B 공간을 확장하는 브랜드들의 움직임은 해외에서도 활발하다. 구미에서는 익숙한 전략적 풍경이지만, 요즘 부쩍 행보가 돋보이는 아시아의 사례를 살펴보면, 지난 1~2년 사이 프라다, 코치, 아르마니 그룹, 마르니 등이 브랜드의 철학과 독자적 감성을 담은 미식 공간을 연달아 선보였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곳은 지난 3월 공개된 ‘미 상 프라다 룽 자이(Mi Shang Prada Rong Zhai)’다. 레스토랑이 위치한 룽 자이는 20세기 초 중국 상하이 중심가에 지은 대저택을 프라다가 세심하게 복원한 공간이다. 미 상 프라다 룽 자이는 헤리티지를 간직한 공간에 걸맞게 세계적인 영화감독 왕가위와 협업으로 완성됐다. 레스토랑 콘셉트 키워드는 ‘에트-베슈(ête-bèche)’, 즉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인쇄된 우표가 나란히 배치된 것을 뜻한다. 프라다의 아트 컬렉션, 중국 고가구, 역사가 깃든 섬세한 디테일이 어우러진 공간에서 이탈리아와 중국의 문화를 창의적으로 결합한 다이닝 메뉴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이 강점이다. 코치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 ‘더 코치 레스토랑(The Coach Restaurant)’을 오픈했는데, 인테리어부터 브랜드 정체성을 잘 살렸다. 뉴욕 스테이크하우스의 콘셉트를 바탕으로 브라운, 그레이, 블랙 컬러를 조합해 편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구축했다. 또 프리미엄 스테이크와 파스타, 디저트, 각테일 등 풍성한 메뉴 구성으로 자카르타 한가운데에 들어선 뉴욕 스테이크하우스의 이채로운 분위기를 잘 살렸다는 평을 받고 있다. 1998년 프랑스 파리에 첫 레스토랑을 오픈한 아르마니 그룹은 ‘엠펙리오 아르마니 카페(Emporio Armani Caffè)’, ‘아르마니/카페(Armani/Caffè)’, ‘아르마니/리스토란테(Armani/Ristorante)’ 등 다양한 형태의 미식 공간을 전 세계에서 전개해왔다. 이러한 행보는 현재까지도 이어진다. 아르마니 그룹은 2024년 일본 도쿄 오모테산도 패션 거리에 아르마니/카페를 오픈한 데 이어, 2025년 중국 베이징과 홍콩에서도 아르마니/카페를 선보였다. 같은 해 도쿄 긴자 식스 인근에 엠펙리오 아르마니 카페를 오픈하기도 했다. 이처럼 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미식 공간을 향한 아르마니 그룹의 움직임이 여전히 활발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쿄 긴자 식스에는 지난 9월 마르니 카페(Marni Café)가 오픈하기도 했다. 브랜드 특유의 선명한 색채 감각이 돋보이는 인테리어, 일본의 유명 파티시에와 협업해 개발한 디저트 메뉴가 현지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세계적인 브랜드들이 스타 셰프, 아티스트와 협업하고, 브랜드 정체성을 녹여내기 위해 고심하며 미식 공간을 확장해가는 이유는 간단하다. 오늘날의 소비자는 브랜드의 제품을 소유하는 것을 넘어, 그들의 철학을 ‘경험’하길 원하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을 방문한 루이 비통 회장 겸 CEO 파에르로 베가리는 조선일보 위클리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럭셔리 산업이 제품 중심에서 경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들 한다. 레스토랑, 박물관, 체험형 공간이 브랜드 가치의 중요한 축이 되고 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식은 맛, 향, 소리 등 다양한 감각을 자극하고, 셰프와의 협업과 메뉴 개발 과정에서 생겨난 스토리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며 경험의 매개체 역할을 톡톡히 해낸다. 그리고 무엇보다 공간에 일정한 시간 머물게 해 브랜드의 철학과 지향점을 ‘인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체득’하게끔 유도한다. 즉 브랜드의 미식 공간은 그들의 세계관과 방향성을 오감으로 경험하게 하는 새로운 입체적 언어라 할 수 있다.

오아르미술관 고분을 품은 독특한 건축미

2025년 봄 경주시 노서동 고분군 공원 일대에 문을 연 오아르미술관은 ‘오늘 만나는 아름다움(One-day Art Rendezvous, OAR)’이란 뜻을 품은 사립 현대미술관이다. 2기의 부부 묘를 나란히 조성한 쌍분(雙墳)을 마주하고 57기의 신라 왕릉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위치 덕분에 ‘왕릉 뷰’ 미술관으로 알려져 있다. 경주 출신 컬렉터 김문호 관장이 20여 년에 걸쳐 수집한 6백여 점 현대미술 작품을 바탕으로 설립된 오아르미술관은 문화 예술 애호가들 사이에서 미술 관람 외에도 왕릉을 보면서 차를 마실 수 있는 ‘힐링 미술관’으로 인소문이 났고, 6개월 만에 18만 명이 넘는 관람객을 맞으면서 경주에서 꼭 가봐야 할 장소로 떠올랐다. 2025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선정되기도 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오아르미술관을 ‘역사적 풍경과 현대 건축 언어의 정교한 결합’이라고 평가했다. 유현준 교수(홍익대, (주)유현준엔파트너스건축사 사무소)가 설계를, (주)제효가 시공을 맡았는데, ‘왕릉이 미술관의 소장품이 된다’는 발상에서 출발했다고 한다. 실제로 미술관 자체는 크지 않지만(지상 2층, 지하 2층) 안과 밖의 경계가 허물어져 1층 오아르 카페에 앉아 있으면 창밖의 왕릉이 마치 미술관으로 걸어 들어올 듯하다. 옥상 루프톱 테라스에 올라서면 고분과 한옥, 상업 공간이 혼재한 도시 풍경이 펼쳐진다. 현재는 소장품 기획전〈잠시 더 행복하다〉가 진행 중이다. 이우환, 박서보, 이배, 줄리안 오퍼, 롯카루 아야코, 조셉 린, 키네 등 단색화에서 동시대 회화까지 살펴볼 수 있다.

1 키네(KYNE), '무제', 2022, 캔버스에 아크릴, 131×162cm. ©오아르미술관
2 2025 한국건축가협회상 '올해의 건축 베스트 7'에 선정됐다. 협회는 역사적 풍경과 현대 건축 언어의 정교한 결합으로 평가했다. ©오아르미술관
3 미술관 2층〈잠시 더 행복하다〉전시 모습. 단색화부터 동시대 회화까지 회화 및 영상 작품 총 49점이 공개된다. ©오아르미술관
4 먼고 톰슨(Mungo Thomson), 4월 12일 / 4월 19일 (일아버린 1년), 2021, 자철분 거울에 에나멜, 포플러 및 양극산화 알루미늄, 188×142×6cm. ©오아르미술관



경주로 떠난 미술 여행

‘코리아 판타지’를 새로 쓰는 서라벌의 미술관들



경주솔거미술관 신라의 향기를 재소환하다

〈삼국사기〉‘신라본기’ 문무왕(文武王) 14년(674년) 기록에 ‘궁 안에 못을 파고 산을 만들었으며, 화초를 심고 진금수(珍禽獸)를 길렀다’는 내용이 남아 있다. 경주 사람들은 옛 신라인처럼 연못을 사랑하는 DNA를 이어가고 있다.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내 아평지(阿平池) 연못가에 위치한 신라시대 화가 솔거(率居)의 이름을 딴 경주솔거미술관은 일종의 ‘연못 뷰’ 미술관이다. 경주솔거미술관은 2008년 작품 기증 의사를 밝히면서 미술관 건립이 추진된 것으로 경성북도와 경주시가 지원한 최초의 공립 미술관이다. 건축가 송효상이 설계한 이 공립 미술관은 외부의 아평지 연못과 주변 숲의 풍경이 미술관 내부로 들어온다. 미술관 관람 후 공원과 호수 주변을 산책할 수 있고, 멀리 경주타워의 실루엣을 조망할 수 있다. 현재 솔거미술관에서는 APEC 개최를 계기로

한국 미술 특별전 〈신라한향(新羅韓香)〉신라에서 느끼는 한국의 향기〉전이 열리고 있다. 이번 전시는 신라의 문화와 불교적 정신을 바탕으로, 현대 한국미술이 세계와 소통하는 여정을 소개한다. 경주솔거미술관의 건립 기증 작가인 한국화의 거장 박대성 화백, 경주 출신의 승려이자 불화의 대가인 송천 스님, 전통 회화 수북 전문 가이자 작가로 활동하는 김민, 패유리를 통해 신라의 유리를 재해석하는 유리공예 작가 박선민의 작품을 만나 볼 수 있다. 솔거미술관 벽면에 설치된 박대성의 ‘코리아판타지’는 가로 15m, 세로 5m의 대작으로 상고시대에서 현재에 이르는 한반도의 장엄한 세계를 그렸다. 한국 수묵화의 거장인 박대성 작가는 2022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미술관(LACMA)에서 최초의 미국 순회전을 개최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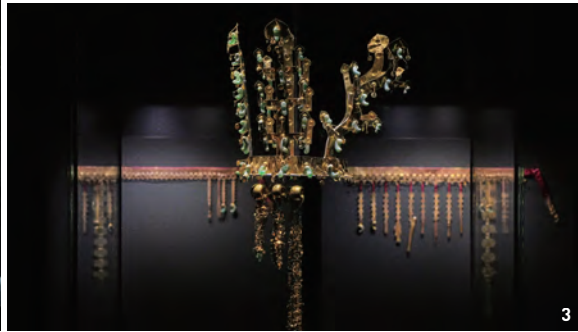
국립경주박물관 1백4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 신라 금관

2025 APEC 정상 회의와 개관 80주년을 기념해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윤상덕)은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Silla Gold Crowns: Power and Prestige)〉을 진행 중이다. 이번 특별전은 신라 금관이 세상에 처음 알려진 지 1백4년 만에 6점의 금관이 한자리에 전시되는 사상 최초의 자리로 큰 의미를 지닌다. 최초로 발굴된 국보 금관총 금관과 금허리띠부터 국보 황남대총 북분 금관과 금허리띠, 국보 천마총 금관과 금허리띠 등 신라 금관과 금허리띠 6점이 모두 공개됐다. ‘황금의 나라 신라’의 실체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일 뿐 아니라 신라 장인의 기술과 공예의 아름다움, 고대 동아시아 교류의 흔적을 두루 살펴볼 수 있는 기회다. 이처럼 신라 유물 자체

의 위상을 느끼는 것 외에도 ‘경주라는 역사적 장소에 모인다는 점이 더 각별하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다루고 기념하고 싶은지 되돌아볼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신라역사관을 보았다면 통일신라의 공결 문화를 담은 월지관도 빼놓을 수 없는 코스다. 월지관은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한 것으로 전통 건축의 널판자(판판하고 넓게 켜 나뭇조각)를 재해석한 디자인과 월지의 밤 풍경을 담아냈다. 특히 국립경주문화유산연구소가 월지 동쪽 기차구의 1호 우물을 발굴하는 과정에서 나온 주사위와 인물상(서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인물 형상)을 주목하자. 신라가 8~9세기 서아시아와 활발하게 교류했음을 알 수 있는 단서다.



1 월지관. 신라 왕국 유적인 동궁과 월지의 발굴 성과를 전시하기 위한 건축물이다. 노출 콘크리트와 유리, 금속 등을 통해 간결한 아름다움을 극대화했다. ©경주박물관
2 금관의 방. 전시는 2026년 2월 22일까지 신라역사관 3a실에서 열린다. 금관은 내물왕부터 지증왕까지 마립간 시기(356~514년)에 제작되었다. ©경주박물관
3 황남대총 금관과 남분 북분 금허리띠. 신라의 금허리띠는 5세기 이후 왕릉급 고분에서 집중적으로 출토되었다. ©경주박물관



‘절은 별처럼 펼쳐져 있고(寺寺星張) 탑은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 있다(塔塔雁行)’. 〈삼국유사〉에서는 신라 경덕왕 때 서라벌(지금의 경주)을 이렇게 묘사한다. ‘사사성장(寺寺星張) 탑탑雁行(寺寺星張 塔塔雁行)’이라는 짧은 문장은 신라의 수도 경주가 얼마나 융성하고 찬란한 도시였는지 명료하게 알려준다. 경주는 도시 자체가 거대한 유적지로 황룡사, 첨성대, 대릉원, 경주세계문화엑스포공원 등의 유적과 주택 및 공원, 상업 시설, 미술관과 박물관 등이 일상 공간에 섞여 있다. 우리는 신라의 고도인 경주를 잊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호출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가을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 개최 이후 경주의 새로운 귀환만큼 화려한 적은 없었다.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도시’로 경주를 부각시키면서 신라의 유산을 세계에 소개한 무대였기 때문이다. 1백4년 만에 신라 금관 6개 모두를 보여주는 경주박물관 전시를 보기 위해 관람객들은 새벽 4시부터 줄을 서기도 했다. 경주박물관 외에 ‘왕릉 뷰’를 자랑하는 오아르미술관, 신라의 향기를 알리는 솔거미술관, 백남준을 재조명하는 특별전과 영국의 터너전을 한국 최초로 여는 우양미술관을 둘러보았다 경주가 선사하는 문화유산과 한국인만이 갖는 신라에 대한 향수(鄉愁)’는 과거에 대한 그리움을 넘어, 현대 도시에서는 찾기 힘든 정서적 가치를 되찾는 경험을 선사한다.

우양미술관 백남준과 윌리엄 터너를 동시에 만나

국내 최초의 사립 현대미술관인 우양미술관은 지난여름 새 단장을 마치고 다시 문을 열면서 APEC 정상 회의 개최를 기념해 특별전 〈백남준: Humanity in the Circuits〉를 선보였다. APEC에서 제안하는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미래-연결, 혁신, 그리고 번영’이라는 비전이 1980~90년대 테크놀로지를 인류 정신의 새로운 확장 가능성으로 바라보고 공동체적 사유를 본격화한 백남준과 철학적으로도 ‘접속’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미공개된 백남준 소장품을 면밀한 수북 작업을 거쳐 처음으로 대중에게 선보이고 있다. 주요작 중 하나는 국내 최초로 공개된 백남준의 비디오 설치 연작 ‘나의 파우스트’ 시리즈 중 ‘나의 파우스트 - 경제학’과 ‘나의 파우스트 - 영혼성’이다. 1989~91년 제작된 것으로 과테의 고전을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우양미술관의 상징이었던 ‘고대기마인상’도 눈여겨볼 만하다. 1991년 개관을 앞두고 건축가 김종성이 설계하는 우양미술관 설립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으로 경주에서 발굴된 고대 기마 인물형 토기를 모티브로 삼았다. 이와 함께 영국을 대표하는 작가 윌리엄 터너(William Turner)를 기리는 〈Turner: In Light and Shade〉전이 한국 최초로 열리고 있다. 탄생 250주년을 맞이한 터너는 실험적인 현대미술 작가에게 수여하는 ‘터너 프라이즈’가 이름을 딴 거장이다. 이번 전시는 공동 주최 기관인 영국 맨체스터대 휘트워스 미술관이 소장한 그의 수채화, 유화 원화, 그리고 판화 시리즈를 동시에 만나볼 수 있다. 특히 터너 판화 작업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리베르 스튜디오’ 시리즈 전체를 1922년 이후 1백여 년 만에 공개했다. 글 천수림(미술 저널리스트)

1 〈Turner: In Light and Shade〉전시 모습. 터너전은 2025년 12월 17일에 개막해 2026년 5월 25일까지 열린다. ©Wooyang Art Museum
2 J.M.W. Turner, 〈바젤(Basle)〉, 1807년 6월 11일 발행(추정), 에칭, 메조틴트, 갈색 잉크 인쇄, 185×260mm. ©Wooyang Art Museum
3 우양미술관 외경. ©Wooyang Art Museum
4 ‘고대기마인상’. 1991년 신라 천년 고도 경주에 우양미술관(옛 선재미술관)이 설립된 것을 기념해 제작한 작품이다. ©Wooyang Art Museum





아틀리에 에르메스_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 <산과 친구되기>

생태적 감각으로 마주한 세계

스페인 바르셀로나 출신인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Daniel Steegmann Mangranó)는 어린 시절 생물학자가 되길 원했다. 그 꿈은 비록 실현되지 못했지만, 오랫동안 품어온 자연에 대한 열망은 성인이 된 그를 아마존으로 이끌었다. 그곳에서 목도한 수많은 생명체가 얹히고설켜 공생하는 모습에 매료된 작가는 이후 20여 년간 브라질에 머물며 숲을 탐구했다. 이러한 고찰은 드로잉, 사진, 비디오, 조각, 설치 등 다양한 매체를 넘나드는 작업으로 치환됐다. 자연과 문화 사이 복합적 관계를 탐구하는 그의 한국 첫 개인전이 아틀리에 에르메스에서 진행 중이다. <산과 친구되기(Befriending the Mountains)>(2025. 11. 28~2026. 3. 8)라는 전시명은 작가가 열대우림을 탐험하며 발견한 자연과 인간의 공생법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이기도 하다.

허물어진 자연과 인간의 경계

오랜 세월 서구 사회는 이원론적 사고에 기반해 발전해왔다. 인간과 비 인간을 구분하고 인간 외의 존재를 도구화하는 관점은 기술의 비약적 성장을 이끈 구조적 기반을 마련했지만, 동시에 생태계 붕괴와 기후 위기를 초래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인류세라는 새로운 지질시대를 맞이한 지금,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는 자연과 세계를 바라보는 인간의 시선을 전환하고자 숲의 구조를 담은 전시 공간을 도시 한가운데에 조성했다. 전시 공간 곳곳에 설치된 파티션이다. 사선으로 세워진 흰 벽은 분명 인공물이지만, 숲속 오솔길과 같은 동선을 형성해 관람객이 전시를 '조망'하는 대신 '탐험'하게 만든다. 전시 초입에 등장하는 세 갈래 길 중 가장 큰 길에는 전시명과 동명의 작품 <산과 친구되기>[Befriending the Mountains](2025)가 자리한다. 작가의 작업 세계를 대표하는 알루미늄 커튼 연작으로, 사람이 지나가기 충분할 정도로 큰 구멍이 뚫린 첫 번째 커튼과 사람이 지나갈 수 없는 위치에 구멍이 뚫린 두 번째 커튼으로 이뤄져 있다. 구멍의 모양은 작가가 한국에서 본 '어떠한 것'의 형상에서 따왔는데, 관람객이 자유롭게 상상할 수 있도록 모티프가 된 대상이 무엇인지는 함구했

다. 첫 번째 커튼을 지날 때 관람객은 바위, 능선 등을 연상시키는 구멍을 아무런 저항 없이 통과할 수 있다. 그러나 두 번째 커튼 너머로 가려면 직접 손으로 커튼을 건으며 알루미늄의 물성을 감각해야 한다. 이어지는 미로 같은 동선을 따라가다 보면 마주하는 작업들도 마찬가지다. 산, 코끼리, 사자, 용 등 각각의 부체가 붉은 '번개치는 돌(Lightning Stone)'(2025) 연작은 직선 형태의 LED 필라멘트 조명과 돌을 접목했으며, '기하학적 자연(Geometric Nature)'(2025)은 나뭇가지와 고무줄을 함께 설치했다. 이처럼 전시장 곳곳에 포진한 작품들은 자연물과 인공물의 경계를 해체한다. 20여 년간 브라질에 거주하며 아생의 자연을 탐구해온 작가가 기하학적 형태의 인공물을 작업에 활용한다는 점이 다소 의아하게 느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는 "우리는 흔히 기하학적 형태를 인위적이라 여기지만, 사실 이는 자연에도 존재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이 말은 인간이 자연 속 질서를 '발견'해 '구조화'한 기하학을 어떻게 인식할 것인가의 문제처럼, 자연을 인간의 근원으로 바라볼지 혹은 인간과 분리된 존재로 규정할지는 결국 우리의 관점에 달렸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더 나아가 '자연에서 탄생한 인간이 만든 인공물을 과연 자연과 완벽하게 분리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다시, 처음 만나는 자연

관람하는 내내 파티션이 만들어낸 길을 따라가다 마지막 코너를 돌면 마침내 열린 공간을 마주하게 된다. 한두 점의 작품만 병치된 통로와 달리 이곳에는 총 4점의 작품이 모여 있다. 그중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는 건 유리창 너머 중정에 설치된 '번개치는 정원(Lightning Garden)'(2025)이다. 검은 화산석으로 뒤덮인 등덕에 산에서 자란 소나무 두 그루가 우뚝 서 있으며, 공중에는 번개 같은 모양새의 LED 필라멘트 전구가 설치돼 있다. "우리가 자연을 처음 마주했을 때의 느낌을 다시 경험할 수 있게 만들고 싶었습니다"라는 작가의 말대로 익숙한 듯 생경한 풍경은 보는 이로 하여금 자연을 새롭게 인식하도록 한다. '번개치는 정원'과 유리창을 사이에 두고 마주한 벽면에는 경주 동궁과 월지에 드린온 보름달을 촬영한 영상 작품 '물고기가 입맞추는 달(Fish Trying to Kiss the Moon)'(2025)이 상영된다. 형체를 알 수 없는 일렁임이 지속되는 영상은 물고기가 등장한 찰나에 비로소 이것이 수면에 비친 달이란 사실을 알아챌 수 있다. 작가는 시적 상상력을 발휘해 결코 맞닿을 수 없는 두 존재인 달과 물고기가 물을 매개로 이어지는 순간을 입맞춤에 비유했다. 이렇듯 전시 전반에 흐르는 정서는 '우리는 앞으로 자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공생할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수렴된다. 그러나 명확한 해답은 전시장 안에 존재하지 않는다. 작가는 자신의 한국인 친구와 자연의 상징물로 각각 '바위'와 '산'을 선택한 일화를 이야기하며, 세계를 바라보는 저마다의 사선이 다르듯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관점 또한 다채로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뒤이어 중요한 건 전시를 통해 새로운 감각을 일깨우고, 관람객이 스스로 연결 고리를 찾아나가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렇기에 전시장을 나서 조우한 풍경이 이전과 조금 달라 보인다면, 전시는 제 소임을 다한 것이다. 이후의 변화는 전시를 관람하며 산과 친구가 될 준비를 마치고 실제 자연을 탐험하며 확장해나가기 할 우리 자신의 몫이다. 글 양혜연(객원 에디터)

- 1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 <산과 친구되기>(2025), 크리스카 알루미늄 커튼과 레이저 컷 파우더 코팅 스틸 프레임, 315×495cm, 315×560cm. 작가의 대표 연작으로 전시 초입 가장 큰 길에 설치됐다. 2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 '번개치는 정원'(2025), 한국 소나무, 화산석, LED 필라멘트 전구 4개, 기번 크기. 중정에 설치된 이 작품은 익숙했던 자연을 새롭게 바라보는 계기를 마련한다. 3 <산과 친구되기> 설치 모습. 전시장 마지막에 자리한 열린 공간에는 '물고기와 입맞추는 달'(2025), '번개치는 돌'(2025) 등이 설치돼 있다. 4 자연과 문화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탐구하는 작가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 5 <산과 친구되기> 설치 모습. 전시장에 설치된 파티션은 숲속 오솔길 같은 동선을 형성해 관람이 탐험하게끔 만든다. 6 다니엘 스티그만 만그라네, '기하학적 자연'(2025), 걸리진 가지와 고무줄, 기번 크기. 작가는 자연에도 기하학적 형태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 1~6 사진 감상대 ©에르메스 재단 제공



이미지 제공, 롯데뮤지엄

▲ 롯데뮤지엄 <스틸, 타샤 튜더: 행복의 아이콘, 타샤 튜더의 삶>

실 세 없이 흘러가는 오늘의 시간 속에서 미국을 대표하는 동화 작가이자 삽화가 타샤 튜더(1915~2008)의 작품과 삶은 우리가 놓치고 지나온 '느린' 순간을 불러온다. 그녀는 자연의 리듬에 몸을 맡기고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며 살아가는 일상의 가치를 평생에 걸쳐 지켰다. 이번 전시는 <호박 달빛(Pumpkin Moonshine)>(1938)을 비롯한 대표작 원화와 드로잉, 수채화 등 1백90여 점의 작품을 통해 작가가 거머쥔 세계를 따라가며, 빠르게 소비되는 시대에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질문을 조용히 건넨다. 전시 기간 3월 15일까지 문의 lottemuseum.com

▼ 국제갤러리 다니엘 보이드 <피네칸의 경야>, 장파 <Gore Deco>

국제갤러리 서울에서 동시에 열리는 두 개인전은 동시대 회화의 상이한 감각을 함께 보여준다. K3와 한옥 공간에서 선보이는 다니엘 보이드(b.1982)의 <피네칸의 경야>는 '렌즈'라는 회화적 장치를 통해 지워진 기억과 시선을 호출하며 보이지 않는 것들을 사유하게 한다. K1·K2에서 펼쳐지는 장파(b.1981)의 <Gore Deco>는 강렬한 색채와 육체적 이미지가 뒤섞인 회화를 통해 욕망과 불안, 감정의 충위를 드러낸다. 두 전시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오늘의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의 스펙트럼을 확장한다. 전시 기간 2월 15일까지 문의 kukjegallery.com



다니엘 보이드 개인전 <피네칸의 경야> 설치 모습. 이미지제공, 국제갤러리

Remember the EXHIBITION

전시는 단순히 작품을 나열하는 무대를 넘어, 지금 우리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감각하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유의미한 장면이다. 이번 시즌 국내 주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만나는 전시는 회화와 조각, 퍼포먼스와 설치를 오가며 가상과 물질, 사라짐과 보존, 몸과 기술의 관계를 각자의 언어로 기록한다. 작품은 완결된 해답이 되기보다 관람 이후에도 생각을 이어가게 하는 단서로 작동한다. 전시장을 나선 뒤에도 문득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그 기억은 당신의 저장소에 의미 있게 간직될 것이다.

▼ 갤러리현대 <畫以道 화이도, The Way of Paint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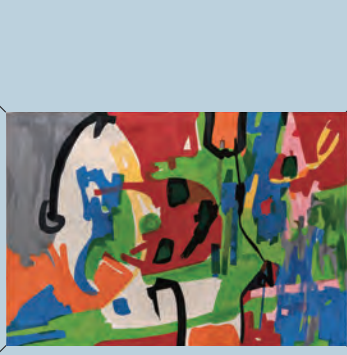
2026년의 문을 여는 <畫以道 화이도, The Way of Painting>는 한국 회화가 걸어온 길과 동시대 작가들의 시선을 함께 비춘다. 김남경, 김지명, 박방영, 안성민, 이두원, 정재은 등 6명의 작가가 참여해 전통 회화가 축적해온 형식과 정신이 동시대 회화 안에서 어떻게 감각적으로 되살아나는지 살펴본다. 전통을 과거에 머문 양식이 아닌, 한국 회화의 현재와 가능성을 조명한다. 전시 기간 1월 14일부터 2월 28일까지 문의 galleryhyundai.com



이미지 제공, 갤러리현대



정희민 개인전 <번민(번민의 정원)> 설치 모습. 이미지 제공, 타테우스 로팩 서울



Etel Adnan, 'Farandole'(2022), 190×130cm, Tapestry. 이미지 제공, 화이트 큐브 서울

▲ 화이트 큐브 서울 <To meet the sun>

서로 다른 대륙에서 출발해 파리라는 도시에서 각자의 시각 언어를 다져온 에텔 아드난(b. 1925~2021)과 이성자(b. 1918~2009)의 작업이 이번 전시에서 마주한다. 레바논 출신의 시인이자 화가였던 아드난은 태양과 달, 산의 실루엣을 통해 세계를 사유해왔고, 이성자는 기하학적 형태로 우주와 삶의 질서를 화면에 펼쳤다. 서로 다른 삶의 궤적 속에서 형성된 두 작가의 작업은 세계를 바라보는 감각과 시선에서 자연스럽게 공명한다. 전시 기간 1월 21일부터 3월 7일까지 문의 whitecube.com



이미지 제공, 국립중앙박물관

▲ 국립중앙박물관 <인상주의에서 초기 모더니즘까지, 빛을 수집한 사람들>

빛과 색채로 세계를 새롭게 바라보려 했던 화가들의 시도가 한 수집가의 선택을 통해 한자리에 모였다. 미국 금융가 로버트 리먼이 수집한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소장 회화와 드로잉 8점을 통해, 19세기 후반 인상주의에서 20세기 초 모더니즘에 이르는 프랑스 회화를 소개하는 기획전이다. 르누아르와 반 고흐의 작품을 포함해, 세기 전환기 예술가들이 빛과 일상의 풍경을 어떻게 새로운 회화 언어로 확장해 나갔는지 살펴본다. 한편 특별전시실 20에서는 <난중일기>(진필본), 이순신 정경 등을 소개하는 <우리들의 이순신>이 3월 3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3월 15일까지 문의 museum.go.kr



이미지 제공, 국립현대미술관

▲ 국립현대미술관 <소멸의 시학: 사는 미술에 대하여>

MMCA 서울관에서는 시간 속에서 변하고 사라지는 과정을 전체로 한 작업을 '사는 미술'이라는 개념 아래 소개하며, 보존과 영속성 중심의 미술 제도에 질문을 던진다. 고사리, 델시 모렐로스, 미래 채로 X 그린 레시미 랩 등이 참여한다. 김영은, 임영주, 김지명, 연메이크랩 등 네 팀이 후보에 오른 <올해의 작가상 2025>는 역시 서울관에서 2월 1일까지 진행된다. 과천관에서는 한국 현대 도예의 확장된 궤적을 조명하는 <신상호: 무한변주>가 3월 29일까지, 청주관에서는 1세대 모더니스트들의 예술을 다룬 <조우(遭遇), 모던아트협회 1957~1960>이 3월 8일까지 열린다. 전시 기간 1월 30일부터 5월 3일까지 문의 mmca.go.kr



무나씨, '영원의 소리'(2023), 182×246cm, Ink and acrylic on Korean paper. 이미지 제공, 스페이스X 서울

» 스페이스X 서울 무나씨 <우리가 지원하는 계절>

여면 기역은 끝내 말로 표현되지 않은 채, 서서히 희미해지며 남는다. 무나씨(b. 1980)는 사람의 순간보다 그 이후에 남겨진 감각을 바라본다. 먹과 한지 위에 등장하는 인물은 얼얼한 개리거나 몸을 웅크린 채 말로 표현되지 않은 기억과 감정의 충위를 드러낸다. 이번 전시는 사라짐과 흔적 사이에 남은 감각을 따라간다. 전시 기간 2월 13일까지 문의 spacek.co.kr



SUBLIMAGE
L'EXTRAIT DE NUIT

수블리마지 렉스트레 드 뉐, 강력한 리페어 효과

CHANEL